

투자자, 1.5°C 행동에 나서다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18

Written on behalf of 650 investors with US\$87 trillion in assets



Report Sponsor



신한금융그룹
SHINHAN FINANCIAL GROUP



KB 금융그룹

Korean Partner to CDP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이하 KoSIF)은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Korean Scoring Partner



EY한영 www.ey.com/kr

EY는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경영자문 서비스의 글로벌 리더이다. EY한영은 EY의 국내 유일 회원법인으로서 약 1,900명의 전문가들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공동의 가치관과 품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EY CCaSS팀은 CSR/지속가능경영 수준 진단 및 전략 수립, EHS 체계 구축 등 글로벌 수준의 CSR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청정 에너지, 국제개발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 국내외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정책 자문 및 개발도상국 지속가능성장 프로그램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18

Writer: 김태한, 엄혜영, 이종오, 이성은, 안민우, 김지선

Design & Publication: 화소

발간사 – 장지인, 위원장 / CDP한국위원회	02
CEO Foreword – Paul Simpson, CEO / CDP	03
Partner Commentary – 서진석, 대표이사 / EY한영	04
발간축사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05
발간축사 – 홍일표, 국회의원 / 국회기후변화포럼	06
발간축사 – 이원욱, 국회의원 /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07
발간축사 – 김성주, 이사장 / 국민연금공단	08
2018 Korea Leaders	09
CDP 평가시스템	11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13
Climate Change Overview	16
Water Overview	21
기관투자자의 기후변화 주주권 행사	27
한국,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도입	29
내부탄소가격, 저탄소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작	31
CDP 2018 Korea Best Practice	34
Climate Change & Water 주요통계	41
부록 I, CDP 2018 Climate Change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49
부록 II, CDP 2018 Water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50
부록 III, CDP 2018 Climate Change Korea 기업별 현황	51
부록 IV, CDP 2018 Water Korea 기업별 현황	56



2018 기업별 전체 응답내용 보기
www.cdp.net

Important Notice

본 보고서 내의 자료는 CDP Worldwide(CDP)에 통보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고서 내의 CDP 또는 공저자의 자료를 이용한 재편집 또는 재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만약 본 보고서상의 자료를 재편집 또는 재판매 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CD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CDP 2018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KoSIF, EY한영 또는 CDP는 보고서상의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대변하거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KoSIF, EY한영 및 CDP는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떠한 주의 의무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고서내의 모든 정보와 전망은 리포트 작성 시점의 KoSIF, EY한영 및/또는 CDP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경제, 정치, 산업 그리고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외부원고는 해당저자 및 기관의 개별적 의견이며, CD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oSIF, EY한영, CDP, 협력기관, 제후 회사 및 해당기관의 주주, 구성원, 파트너, 임직원들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에 언급된 기업의 주식은 일부 주 또는 국가에서 구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수익은 환율 변동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P' 및 'CDP Worldwide'는 자선단체(no. 1122330)와 보증책임회사(no. 05013650)로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CDP Worldwide를 지칭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CDP의 로컬 파트너로서 CDP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처를 맡고 있으며, EY한영이 한국평가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장지인 위원장, CDP한국위원회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국내 최초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 선언은 타 공적연기금과 공적금융으로 이어지고 민간금융기관으로도 확산되어야 합니다. CDP에 서명하거나 정보공개한 금융기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금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년 IPCC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는 “금세기 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세계의 과학자들은 IPCC총회에서 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재앙을 막기 위한 지구기온 상승저지선을 기존 2도에서 1.5도로 0.5도 낮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별보고서는 2도와 1.5도 상승할 때의 차이를 비교했는데 그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1.5도에서는 해수면 상승이 10cm 낮아져 1000만명이 해수면 상승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심각한 물부족에 노출되는 총인구비율도 2도 대비 50%나 감소하며, 빈곤에 취약한 인구도 수억 명이 줄어듭니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도 상승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1도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지구적 차원의 1도 상승으로 우리는 폭염, 폭우, 폭설, 한파, 한발(旱魃) 등 예측하기 힘든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도 이상 더 상승한 세상에서 벌어질 재앙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1.5도 이하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1.5도 이하를 위해 즉각 행동하는 일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금융과 기업이 1.5도 저지에 적극 동참하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8년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Action Plan :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해 금융의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 및 저탄소 프로젝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가장 먼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요청으로 '기후 관련 재무정보 태스크 포스'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구성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기후변화 정보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하 바 있습니다. TCFD 권고안은 향후 G20 국가에서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CDP는 2003년부터 이러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TCFD 설립과 권고안은 CDP의 성과에 기반해 있습니다. CDP는 TCFD의 권고안을 즉각적으로 반영해 금융기관과 기업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보공개 시스템을 개선했고,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 플랫폼을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했습니다. CDP에 참여한 기업의 시가총액 합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50% 이상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출발은 투명한 정보공개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구온난화 1.5도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큰 흐름이 또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기조 속에 진행되고 있는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투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탈석탄동맹'이 출범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캘퍼스 등 공적기금은 물론 HSBC, BARCLAYS, Goldman Sachs 등 주류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투자·재생에너지 투자 선언에 대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슬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등록된 탈석탄 금융기관만도 현재 1143개(자산운용 규모 8.72조 달러)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향후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석탄발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자원에 참여하지 않는 한편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투자에 노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두 공적연기금의 이러한 선언은 타 공적연기금과 공적금융으로 이어지고 민간 금융기관으로도 확산되어야 합니다. CDP에 서명하거나 정보공개한 금융기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CDP한국위원회와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는 오늘 특별한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물'이 지속가능성의 중요한 이슈임을 한국의 기업들에게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성과 정보공개를 통한 물 경영 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공멸입니다. CDP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담대한 행동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Paul Simpson

CEO, CDP



세계경제가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2020년부터 세계 각국은 새롭게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해야 합니다. 2019년은 새로운 목표 이행 이전 마지막 해입니다. 세계가 빠른 시간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peak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도 경제계의 지속적인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8년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온실가스 감축의 긴급함을 담은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유엔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me도 현재 전 세계가 제시한 감축목표가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기업과 투자자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는 이제 더없이 명확해졌습니다. 저탄소 사회의 기회를 잡을 것인지, 변화를 거부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의 기후변화 활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더 많은 기업이 환경정보 공개에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18년 전 CDP가 도입될 당시에는 자본시장에 기후변화 정보 공개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18년이 지난 오늘, 지난해에 비해 11% 증가한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기업이 CDP 플랫폼을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CDP에 참여한 기업의 시가총액 합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CDP의 성과에 기반하여,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Financial Disclosure, TCFD를 설립하였습니다. TCFD의 설립은 환경정보 공개가 주류 경제시스템 속으로 더욱 깊이 다가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모든 G20 국가에서 기후변화관련 정보 공시의 의무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CDP는 TCFD의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정보공개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2018년 7,000여개 기업의 TCFD 권고안에 부합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CDP에 참여한 상장사의 72%는 TCFD의 25개 항목 가운데 21개에서 25개의 항목을 공개하였습니다.)

담대한 활동은 높은 투명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CDP의 오랜 믿음입니다. 전 세계 기업과 금융계 리더는 2018 Global Climate Action Summit에 모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회담은 현재 우리가 이룬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이정표였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500개 이상의 기업이 과학에 기반한 감축목표 수립을 공언하였고, 150개 이상의 기업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약속하였습니다. 더불어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자산의 저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2018년 10월 브라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인 아마존 열대우림을 위협하는 정책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전 유럽에 걸친 폭염부터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기록적인 가뭄, 북·남미의 허리케인과 북극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까지 2018년 일어난 이상기후 현상은 자본시장과 우리사회에 엄청난 비용을 가져왔습니다.

IPCC에 따르면,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1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 혁신적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기업, 투자자, 도시, 중앙정부와 주정부 등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경제계가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더불어, 정부에 보다 강화된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전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의 달성은 불가능한 미래가 아닙니다.

서진석 대표이사, EY한영



EY한영은 CDP 기후변화 프로젝트의 한국 평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통해 기업의 활동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여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기업 활동에 관한 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뿐 아니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Y한영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활동과 전략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주요 투자 정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의 운영 및 재무 공시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공개의 개선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하여 투명한 기후변화 재무공시와 더불어 에너지 혁신과 신사업 발굴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 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범지구적 대응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2018년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의 CO₂를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CO₂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이른바 'Net-Zero' 배출을 달성해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 및 금융 업계의 지도자들은 파리협정이 지향하는 2도 제한 목표 및 1.5도 달성 노력을 위하여 2018년 세계 기후 행동 정상 회의(Global Climate Action Summit)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토지, 도시, 산업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기후문제 해결과 함께 기업의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이 가능해지고 에너지 사용 최적화가 실현될 것입니다.

글로벌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관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에서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도전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 관련 위험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대부분 경제 부문과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투자자에게 기후 변화는 현재와 미래에 상당한 재무적 도전과 기회를 불러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전략 및 자본의 배분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기후변화 재무정보에 적절한 정보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EY의 2018 Global Survey를 살펴보면, ESG 정보는 투자자의 97%가 대상 기업의 투자 결정 프로세스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상장 회사로부터 더

높은 품질의 비재무 데이터를 요구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관성있는 투자 등급 정보를 요구합니다. 또한 설문 응답자들은 ESG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유용한 비교 기반을 만들고 벤치 마크를 수립하고 추세를 표시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발간한 EY Global Climate Risk Disclosure Barometer 2018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며 상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 시나리오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 내부 역량과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비즈니스 전략과 계획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서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CDP를 통해서 기후변화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CDP는 2018년 TCFD의 권장 사항이 통합된 CDP 공개 플랫폼을 통해 7,000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 공시를 유도하였습니다. CDP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기업, 시장을 대신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 정보를 수집하는 글로벌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보는 투자자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투자를 이끌어 기업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EY는 재무적인 정보 유통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대표 회계 컨설팅 조직으로서, 정보의 투명성과 일관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계 서비스는 물론이고 기후변화 및 물 리스크관리와 같은 비재무적 서비스 역량 또한 발전시켜 기업의 총체적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Y한영은 CDP Climate Change & Water 프로젝트의 한국 평가기관으로서, 기업들의 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기업 활동 조사 문항 개발과 평가 체계 개선을 지속함으로써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명예회장



파리 기후변화협약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의 빠른 단계적 해소가 필요합니다. 1.5도로 제한하려면 OECD 국가와 EU 28 개국은 2030년 안에, 나머지 국가는 2050년 안에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라도 탈 석탄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가 공동으로 당면한 최대 위협입니다. 먼 미래에 닥칠 위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는 이 위협에 대처하고자 지난 2015년 12월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했고,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비준을 진행해 2016년 11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저는 당시 유엔사무총장으로서 파리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시간과의 싸움이며, 만약 파리협상이 실패할 경우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인류의 투쟁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신기후체제에 의해 금세기말까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고, 더 나아가 섭씨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어 인류가 더욱 분투하지 않으면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 석탄발전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1.5℃로 제한하려면 OECD국가와 EU 28개국은 2030년 안에, 나머지 국가는 2050년 안에 이 목표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라도 화석 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한 2015년 이후부터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공동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2020년부터는 새롭게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중요한 주체입니다. 저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기업과 금융, 기업과 기업의 연결고리가 됨으로써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경영 정보를 CDP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관리 등 노하우를 서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CDP한국위원회와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가 물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기업에게 물 책임성과 물 경영은 여전히 생소한 이슈입니다. 법제계적으로 기후변화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물이든, 우리들은 전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연대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오직 책임있는 행동만이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일표 국회의원·대표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국회CSR정책연구포럼



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 자원 등 환경정보공개에 글로벌 표준으로 글로벌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CDP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CDP를 지원해야 합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2020년부터는 신기후체제에 들어갑니다. 국가별로 2020년부터는 새롭게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공동의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금융부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를 1.5도 이하로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의 재분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G20의 요청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만들고, 금융과 기업이 주류 재무보고서에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TCFD에 대해 아직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환경 정책당국이 아닌 주류 금융당국에서 TCFD 권고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TCFD는 머지않은 장래에 G20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의무화 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은 TCFD 권고안을 비재무 정보 의무공시제도에 이미 반영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TCFD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적용 그리고 확산에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TCFD 권고안은 2003년부터 CDP가 이룩해 놓은 성과를 토대로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CDP에 정보를 공개하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TCFD에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DP는 가장 시장친화적으로 기업의 탄소경영을 촉진하고 저탄소 시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업은 CDP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자사의 탄소경영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목표와 전략수립 그리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CDP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에의 표준으로 글로벌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CDP를 최대한 활

용하는 방안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요구됩니다.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CDP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CDP한국위원회와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물 책임성과 물 경영을 촉진하는 협약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에 속하지만 기업들의 물 경영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 협약식을 계기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기업이 CDP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물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동시에 유엔글로벌콤팩트의 물 이니셔티브인 CEO Water Mandate에도 적극 가입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공시할 ESG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는데, 이때 기후변화와 물 등 환경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로서 우리 기업들이 저탄소 시대에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욱 국회의원·대표의원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국회SRI정책연구포럼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금융지원과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석탄발전이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도 석탄발전은 결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옳고 경제적으로도 석탄보다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한반도는 ‘폭염 지옥’이었습니다. 이 폭염은 전 지구적 현상이었고, 북반부 중 우리나라는 극심했습니다. 원인은 화석연료를 삼키고 온실가스를 배출한 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2018년의 여름은 우리들에게 기후변화가 가져다 줄 가장 악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2019년의 여름이 두려워집니다.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가 해결해야 할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해결해 나가야 하는 촉박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국경도 없고 지리적 경계도 없어 그 어느 나라든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은 지구 공동체의 파국을 막자는 공동의 인식이 이끌어 낸 역사적인 합의였습니다.

이 협정으로 2020년 신기후체제가 들어서지만, 이를 위한 담대한 실천은 따르지 않습니다. 지구 재앙을 막기 위해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여야 하지만 세계는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록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파리 기후협정을 위한 이행지침이 채택되었지만, 과연 재앙으로 향하는 기관차 브레이크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욱 강력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습니다. 이 수준으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의 37%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과거 정부 로드맵인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한 달성 불가능합니다. 석탄화력 발전 비중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나 축소,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안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만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을 이끌면서 2018년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출범시켰습니다.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그린피스, 세계자연기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연대, 생명다양성재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 발족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DGB금융그룹 등 12개 기업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선언했습니다.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은 CDP와 The Climate Group의 이니셔티브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을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RE100 이니셔티브는 전력사용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으로, 현재 172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3개가 참여해 출발한 2014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한국형 RE100을 실현하기 위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석탄발전 금융지원과 관련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저를 포함해 다수의 의원들이 석탄발전 금융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규제, 재생에너지 투자증대와 기술발전, 주류 금융기관의 탈석탄 대거 동참, 국제 및 국내 시민사회의 압력 등으로 석탄발전 금융지원에 대한 미래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랙커 이니셔티브는 세계 석탄화력 발전설비 용량의 95%를 차지하는 34개국을 대상으로 파리 기후협정 목표에 맞게 전력시장을 운영할 경우,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최초자산 위험규모는 세계 1위로 분석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3위, 베트남은 7위입니다. 이는 국내는 물론 석탄발전이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동남아에서도 석탄발전은 결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 눈을 돌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옳고 경제적으로도 석탄보다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과 기업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지난해 책임투자 금액은 26조 7천억 원으로 2017년 6조 8천억 원 대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책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ESG 정보공개를 자발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은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40도에 이르는 유례없는 폭염을 경험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역대 최악의 산불과 유럽 전역의 고온현상, 지구 한 쪽에서 극한 가뭄이, 다른 한 편에선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상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총 6천여 건의 기상재해로 6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매년 3,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격렬 기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위험', 환경 이슈에 대해 기업이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소송 위험', 정부가 정책과 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험'처럼 기후변화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막연한 위험이 아니라, 현실의 위협입니다.

실제 2017년 보험에 의해 보전된 대참사 관련 손실은 110억 유로에 달하고, 미국에서 기후 관련 손실로 화석연료회사를 고소한 경우는 16건에 이릅니다.

해외에서는 환경 이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연금수탁자가 투자할 때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2019년 10월부터는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2018년 8월 캘리포니아 주는 전체 운용액이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지역 대표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에 대해 투자의사 결정 시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고려하도록 하는 상원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초래될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캘리포니아 주의 연금가입자와 수급자, 그리고 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2018 AODP(Asset Owners Disclosure Project)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공적 연기금의 60% 이상이 기후 변화에 '거의 또는 새로운 전략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세계 공적 연기금의 기후변화 대응은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도 그간 환경 이슈 대응수준이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지난해 책임투자 금액은 26조 7천억 원으로 2017년 6조 8천억 원 대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투자 방식도 기존 국내주식 위탁투자 뿐 아니라 액티브 직접운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책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에 국민연금 책임투자 개선방안에 관한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책임투자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을 보다 확고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연기금으로서 환경 이슈를 포함한 ESG 요소를 통합적으로 투자 의사결정 시 고려하도록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시에도 위탁자산에 대한 책임투자 고려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책임투자 활성화 노력은 로드맵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도 책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ESG 관련 정보공시를 자발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시장은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2018 Korea Leaders

Climate Change

The Climate A List

신한금융그룹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CDP Korea 명예의 전당

구분	기업명	현액연도
Platinum Club	SK하이닉스	2013
	삼성전기	2014
Gold Club	삼성물산	2016
	KT	2017
	신한금융그룹	2018
	현대건설	2018

CDP Korea Awards Climate Change 수상기업

시상명	부문	수상기업명	점수	연속수상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신한금융그룹	Leadership A	5년
		현대건설	Leadership A	5년
		LG디스플레이	Leadership A	2년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1년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금융	신한금융그룹	Leadership A	6년
		KB금융그룹	Leadership A-	2년
		DGB금융그룹	Leadership A-	1년
		IBK 기업은행	Leadership A-	1년
	산업재	현대건설	Leadership A	7년
		삼성엔지니어링	Leadership A-	4년
		현대글로벌비스	Leadership A-	2년
	선택소비재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1년
		코웨이	Leadership A-	10년
		한국타이어	Leadership A-	2년
	에너지&유틸리티	한국지역난방공사	Leadership A-	4년
		한국전력공사	Leadership A-	3년
	원자재	LG화학	Leadership A-	6년
	통신	LG유플러스	Leadership A-	5년
	IT	LG디스플레이	Leadership A	3년
		삼성전자	Leadership A-	10년
탄소경영 특별상	신규참여	기아자동차	Management B	
	자발적 참여	SK건설	Leadership A-	1년
		한국남동발전	Management B	1년

2018 Korea Leaders Water

The Water A List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CDP Korea Awards Water 수상기업

시상명	기업명	점수
최우수	LG이노텍	Leadership A
우수	LG디스플레이	Leadership A
	삼성전자	Leadership A-

CDP Korea Awards 공로상

공무원연금공단

CDP Korea Awards^{1,2} 수상기업 선정기준

Climate Change³

명예의 전당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5년 연속 편입 기업
- Platinum Club: 명예의 전당 4년이상 유지 기업
- Gold Club: 명예의 전당 1년 - 3년차 기업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 Leadership A 획득 기업 가운데, Leadership 점수 상위 5개 기업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 각 섹터 별, Leadership A 또는 A- 획득 기업 가운데, Leadership 점수 상위 3개 기업
- Leadership A 획득 기업에 우선순위 부여

탄소경영 특별상

신규참여 부문

- 신규 참여 기업 중 Management B 이상 획득 기업 가운데 상위 3개 기업

자발적 참여 부문

- CDP Korea 200 샘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CDP를 통한 정보공개에 참여하였고, Awareness C 이상을 획득한 기업 가운데 상위 3개 기업

성과향상 부문

- Leadership A- 이상 획득 기업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하여 성과향상 폭이 가장 높은 2개 기업

Water

최우수

- Leadership A 획득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 획득 기업

우수

- Leadership 점수 기준 2위 및 3위 기업

1. CDP Korea Awards는 글로벌과 동일한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선정된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시상제도입니다.

2. CDP Korea Awards의 수상기업은 CDP 한국자문위원회 (명단: 보고서 후면 참조)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3. CDP를 통해 보고한 전체 응답내용에 대한 제3자 검증 받을 기업은 수상기업 선정 시, 인센티브 (10%) 부여됩니다.

CDP 평가시스템

CDP 평가시스템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업은 CDP 평가를 경쟁사 혹은 섹터 내의 최우수 기업과의 비교를 통한 지속가능성 로드맵 수립의 초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 CDP 평가방법론은 기업의 환경성과를 향상하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개선되어 왔다. CDP 평가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경제의 실현이라는 CDP의 미션과 원칙 달성을 위한 핵심이다.

CDP의 2018년 질의서는 3가지 영역 - 기후변화^{climate change}, 수자원^{water}, 삼림^{forest}- 내에서 각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샘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CDP는 활동, 활동그룹, 산업의 세 단계로 구성된 활동기반 산업분류 시스템^{Activity Classification System}, CDP-ACS¹이라는 새로운 기업 분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CDP-ACS는 기업이 매출을 창출하는 사업영역과 사업이 기후변화, 수자원 안정성, 삼림훼손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기업을 가장 적절한 섹터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환경 리스크, 기회, 영향의 관점에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데이터의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DP의 3가지 영역 별 질의서(기후변화, 수자원, 삼림)는 각각 별도의 평가방법론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섹터 기반 평가방법론은 기업 응답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각 섹터의 특성과 기업의 환경 책임에 대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다른 기업과의 비교가능성도 높인다.

CDP 평가는 내부 검증을 거친 평가파트너에 의해 수행된다. CDP 평가팀은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대한 관리와 기업간, 평가파트너간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검증을 진행한다.



CDP 2018 질의서에 대한 작성안내서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cdp.net/guidance/guidance-for-companies

CDP에 기업의 환경책임은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하여 기업의 응답을 평가한다: Disclosure: 기업 응답의 완성도 평가; Awareness: 환경이슈, 리스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 평가; Management: 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기업의 활동, 정책, 전략 평가; Leadership: 환경경영 관련 우수사례 Best Practice 및 리더십 평가
각 질문 문항은 두 개이상 단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각 단계별 평가기준은 질의 문항 전반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으며, Disclosure 단계 평가는 모든 문항에 적용된다. 반면 일부 문항의 경우 Awareness, Management, Leadership 단계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Climate Change	Water
A	>65%	>55%
Leadership A-	1-64%	1-54%
B	45-74%	45-69%
Management B-	<45%	
C	45-79%	
Awareness C-	<45%	
D	45-79%	
Disclosure D-	<45%	

F: 기후변화대응 수준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F 부여²

1. 추가정보, <https://bit.ly/2FpQdY>
2. 모든 기업이 CDP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지는 않음.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F가 부여됨. 다만, F가 반드시 해당기업이 환경경영 또는 환경책무 이행에 실패하였음을 나타내지는 않음.

CDP 평가시스템

평가 카테고리 및 가중치

CDP는 세분화된 기업평가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 카테고리 수를 늘렸다. 평가 카테고리는 2018 질의서 모듈의 하위 그룹으로, CDP의 프로그램(기후변화, 수자원, 삼림)별로 상이하나 동일 프로그램 내의 섹터 간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한 환경이슈라 하더라도 섹터 별로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법은 다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섹터 별로 문항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였다.³

가중치는 Management와 Leadership 단계의 카테고리 별 점수 산정에 적용되며, 점수 산정 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분자값/분모값*100. 비율(%)로 산정된 각 단계의 카테고리 별 점수는 해당 카테고리의 부여된 가중치를 반영하여 재산정되며 (카테고리 가중치(%) / 100* Management/Leadership 점수(%)), 각 카테고리의 점수의 합이 최종 점수가 된다.

가중치는 Management와 Leadership 단계 평가에만 적용되며, 새롭게 도입된 문항이 포함된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부여될 예정이다. 각 이슈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동일한 섹터라 하더라도 프로그램 별로 다른 가중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CDP점수는 CDP보고서, 블룸버그 터미널, 구글 파이낸스, 독일 증권거래소 Boerse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DP는 평가와 관련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dp.net/scoring-conflictinterest>

카테고리	Management 가중치	Leadership 가중치
지배구조	12.0%	12.5%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10.0%
리스크 공개		8.0%
기회 공개		8.0%
사업영향평가 & 재무계획평가		5.0%
사업전략		5.0%
시나리오 분석		1.0%
목표		12.0%
온실가스 감축활동 및 저탄소 제품		5.0%
Scope 1 & 2 배출량 (검증 포함)		12.0%
Scope 3 배출량 (검증 포함)		5.0%
배출량 세부내역		0%
에너지	6.0%	7.0%
기타 기후관련 지표 (검증 포함)		0.0%
탄소가격	2.0%	0.0%
가치사슬 인게이지먼트		5.0%
정책 인게이지먼트	1.0%	0.0%
커뮤니케이션	1.0%	0.5%
Sign off		2.0%
100% Disclosure 점수 획득	0.0%	2.0%
합계	100%	100%

3. 이 표는 공통General 평가방법론에 적용된 카테고리 별 가중치 예시임. 섹터 별 평가 카테고리 및 가중치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금융기관,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 본격화

최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660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재무요소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 즉, 환경·사회·지배구조(ESG)도 함께 고려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근간으로 하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움직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7.59조원으로 전년도 7.63조원 대비 230% 증가한 수치이다. 국민연금은 2018년 말 기준 국내주식 투자금액의 24.5%에 해당하는 26.73조원을 사회책임투자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사학연금(1,329억원, 30% 증가)과 공무원연금(1,022억원, 38% 증가)도 사회책임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를 위탁 운용사의 평가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공적 연기금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사회책임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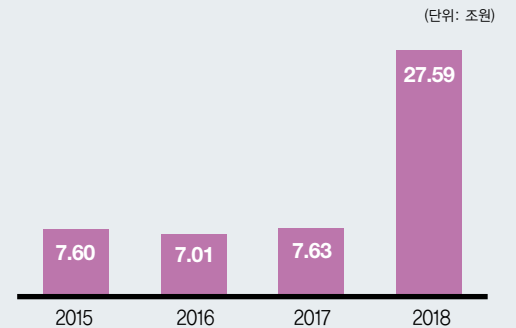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전 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하고 있는 일반적인 투자기법이다. 특히 ESG 이슈 가운데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금융관련 국제기구, 정부, 금융기관의 활동이 활발하다.

금융의 기후변화 리스크 반영 위한 국제 움직임 활발

2015년 도입된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는 기후변화에 대한 달라진 금융계의 시각을 가장 잘 보여준다. TCFD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에 요청하여 설립되었다. 2019년 2월 기준 전 세계 580개의 기관이 TCFD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기관 가운데서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관, 증권거래소, 무디스, S&P와 같은 신용평가기관 및 주류 금융기관 등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관리 감독하는 모든 형태의 참가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연기금,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사회책임투자 및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을 가져왔던 투자자뿐만 아니라, 6,000조원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과 같은 민간 투자기관도 TCFD를 도입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TCFD에 기반한 기후변화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한국 사회책임투자 규모



2018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비재무정보 공시를 의무화한 EU는 TCFD의 권고를 의무공시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최근 코드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프랑스는 이미 은행의 건전성 평가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무디스, S&P와 같은 신용평가사들도 은행신용평가 기준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 금융기관 ESG 활동 및 제도 정비 본격 시작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8년 10월 한국 최초로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공무원연금은 투자기업에 기후변화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국민연금도 앞으로 발표될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환경과 사회요소에 대한 강화된 투자 기준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공적연기금의 평가기준에 사회책임투자를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변화에 관심과 관련 정보공개 요청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와 금융리스크

기후금융 마일스톤

글로벌 기후금융 동향
한국 기후금융 동향





Climate Change Overview

금융기관의 기후변화정보 요구, 한국기업 준비 수준 분석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는 전 세계를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로 몰아넣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출발점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의 실패이다. 2014년 터키에 모인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며, 기후변화 리스크를 자산평가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TCFD 지지선언 한국 금융기관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DGB금융그룹

G20는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을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요청했다. FSB는 기후변화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를 설립하여 실무작업을 진행하였고, 2017년 독일에서 열린 G20에 TCFD의 권고안을 전달했다.

TCFD 권고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금융기관은 기후변화 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한 자산 평가 시스템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이를 위해서 기후변화가 투자대상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정보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TCFD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해수면 상승, 이상기후 현상 등과 같은 물리적 위험과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정책, 기술, 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환위험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요소와 자원효율성 향상,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등의 기회요소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미래가치와 비용 및 매출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전체 가치에 반영된다고 분석한다.

TCFD는 권고안 도출과정에서 CDP 등과 같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자발적 정보공개활동을 대폭 수용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이 반드시 공개해야 할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다음

TCFD의 기후변화정보공개 권고안의 핵심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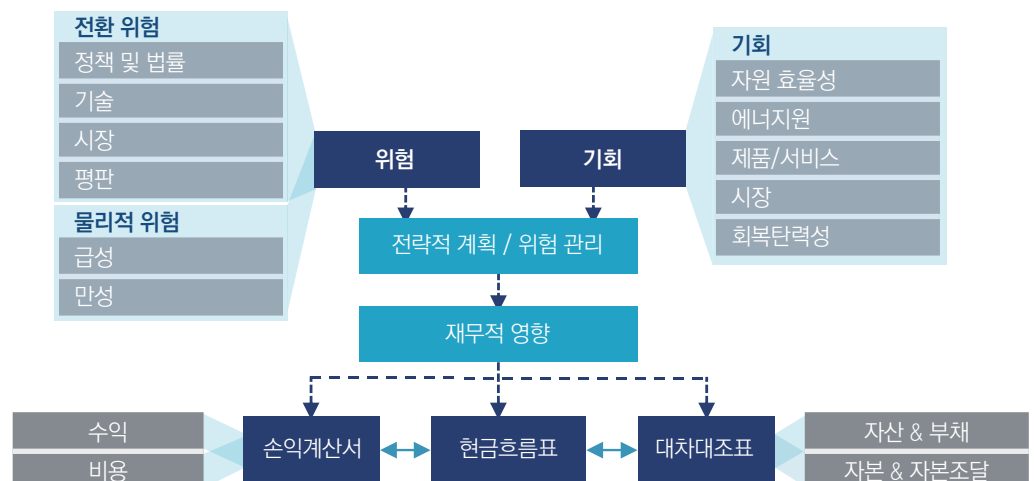


의 4가지로 구분했다: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그리고 관련 목표 및 지표

TCFD의 권고안은 내용 면에서 CDP의 기후변화 정보공개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다. CDP는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의, 시나리오 분석 등 TCFD에서 새롭게 도입한 개념을 CDP 2018 질의서에 반영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TCFD에서 공개를 권고하는 4가지 핵심요소를 기준으로 한국기업의 수준을 진단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위험, 기회 및 재무적 영향¹⁾



1. 출처: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2017)

Climate Change Overview

지배구조

TCFD 권고안 - 지배구조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개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설명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지배구조는 해당 이슈를 대하는 기업의 태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이 투자시점과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는 시점의 괴리가 큰 장기적 이슈의 경우, 그에 알맞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없이는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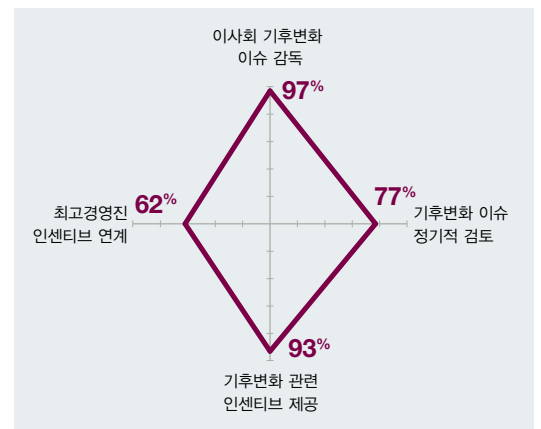
한국기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준비 빨라

CDP에 응답한 거의 모든 한국기업은 기업의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최종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7%의 기업은 이사회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이슈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실질적 활동을 이끌어 내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기후변화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도 93%로 높은 수준이었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후변화를 최고경영진의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있었다.

한국기업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배구조 체계 자체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도입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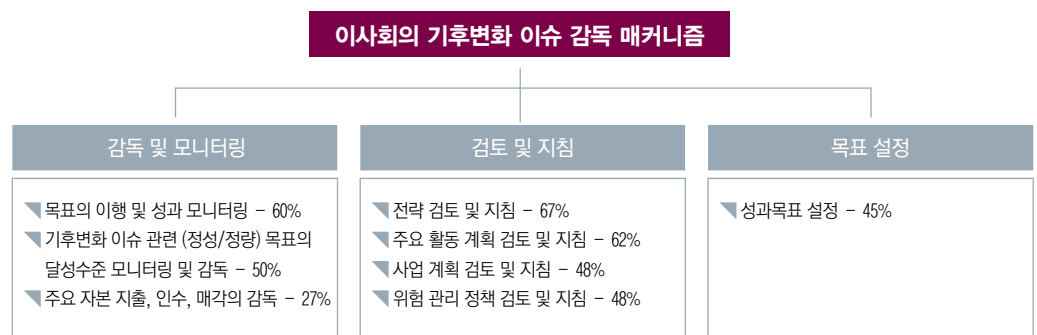
외형적 체계 구축과 더불어 실질적 변화 위해 노력해야

알맞은 지배구조 구축은 분명히 좋은 출발점이다. 하지



만 토끼와 거북이 우화에서 누누이 강조하듯 출발이 좋다고 반드시 최종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해외 기업들이 RE100, SBTi 등 여러 기후변화관련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선도적 대응을 해나가는 데는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컸다고 알려졌다. 한국기업 가운데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외의 자발적 활동에 나서는 기업은 극소수다. 기업의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을 촉진하고 감독해야 하는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제 잘 만들어진 그릇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사회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Climate Change Overview

전략

TCFD 권고안 - 전략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미치는 현재/잠재적 영향을 공개

- a) 조직이 파악한 단기, 중기, 장기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 설명
-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 c) 2°C 또는 그 미만의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를 고려한 전략의 회복탄력성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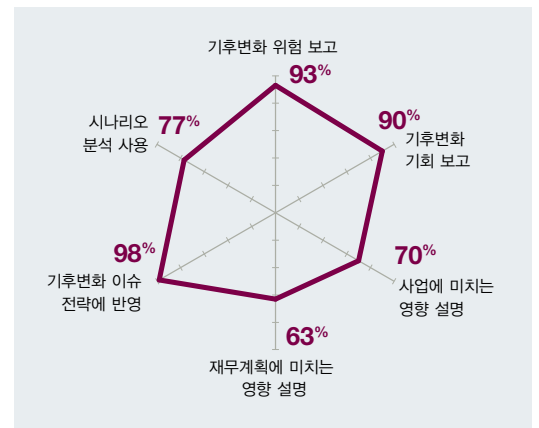
잘 만들어진 전략은 냉철한 상황분석에서 시작된다. TCFD는 기업이 기후변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단순히 현재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장기간의 미래시점까지 검토하고, 더 다양한 이슈를 반영할수록 기업이 위험을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진다. TCFD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한다.

위험 및 기회 보고 기업 많지만, 시나리오 분석 사용 기업은 적어

90% 이상의 한국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및 기회를 보고하고, 개별 위험, 기회요소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대응 방법을 공개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업이 기후변화 이슈를 기업의 사업전략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전략의 수립에 시나리오 분석을 반영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77%로 낮았으며, 이들 기업이 전략에 반영한 시나리오의 대부분은 국가감축목표였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2°C 목표에 부합하는 RCP2.6이나 2DS 등의 시나리오를 전략수립에 적용한 기업은 8개에 불과했다.

1.5°C 시나리오까지 반영해 전략 수립해야

최상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함께 반영해야 좋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미 2°C를 넘어 1.5°C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각국이 유엔기후협약에 제출한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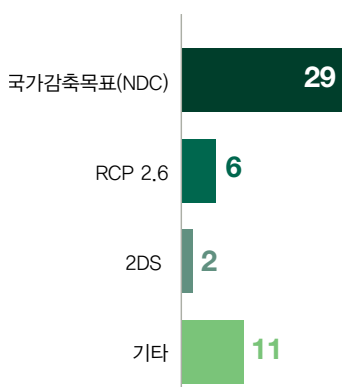


목표는 1.5°C는 커녕 2°C 목표를 달성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파리협정도 이 점을 고려하여 각국이 5년마다 목표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¹ 국가목표만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한다면, 기후변화가 가져올 미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국제적 합의도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다르다. 합의의 파기는 곧 재앙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전략은 기대가 아닌 냉철한 현실에 기반해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다가올 저탄소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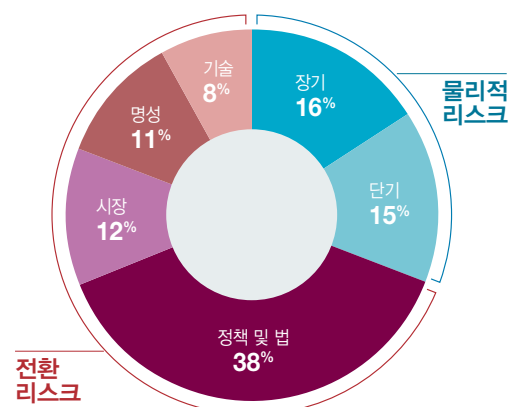
1. 31페이지 참조

사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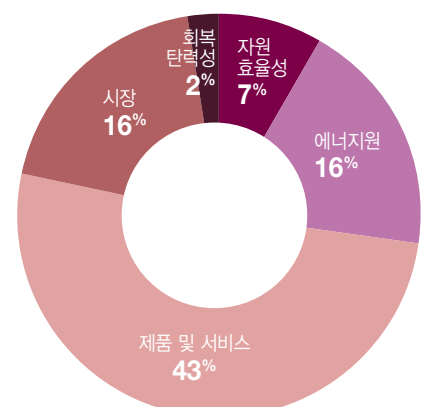
(단위: 개)



보고된 위험 유형



보고된 기회 유형



Climate Change Overview

리스크 관리

TCFD 권고안 - 리스크 관리

조직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방법을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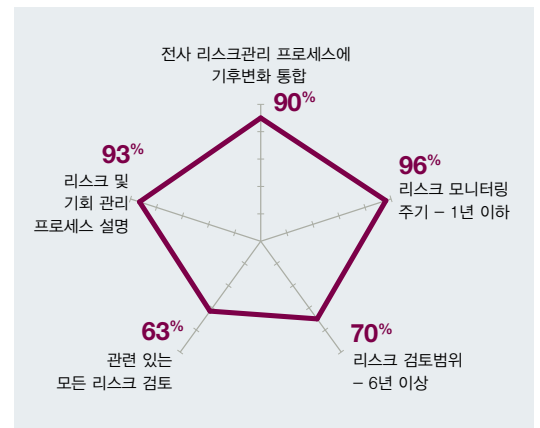
-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 c)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사적 위험 관리프로세스와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

의류업에 속한 한 기업은 '우리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CDP 응답을 거부해 왔다. 많은 기상전문가들은 2017년 겨울의 혹한과 예상과 다르게 따뜻했던 2018년의 겨울 모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의류업계는 2018년 겨울, 재고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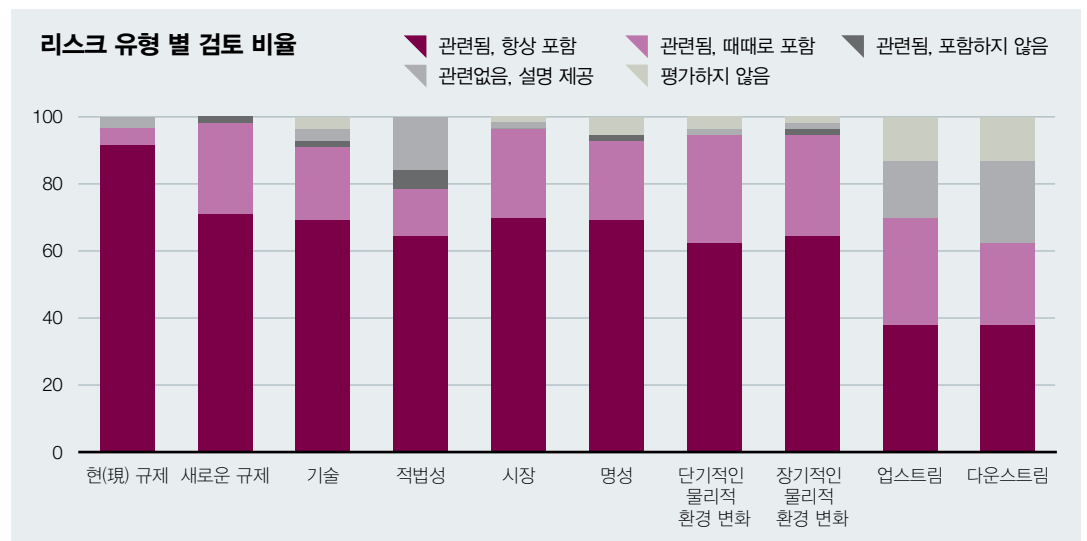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변화는 광범위하다. 단순히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측치 못한 여러 기상현상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사회,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 제대로 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리 관리하지 않는다면, 저탄소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

포괄적,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리스크 접근 필요

90% 이상의 응답기업이 기후변화를 전사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했고, 매년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6년 이상 장기 리스크를 검토하는 기업과 모든 유형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업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의 검토 비율은 높은 반면, 공급망과 소비자 등 가치사슬과 관련된 리스크의 검토 비율은 낮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는 태풍, 집중호우와 같이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해수면 상승, 기술의 변화, 소비자 성향 변화와 같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 영향이 매우 복잡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2010년을 전후해 이상기후로 인해 촉발된 국제곡물가격 상승은 '아랍의 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아프리카 지역의 극심한 가뭄은 유럽의 난민문제를 가져왔다. 두 사건 모두 해당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고, 한국기업의 공급망 및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Climate Change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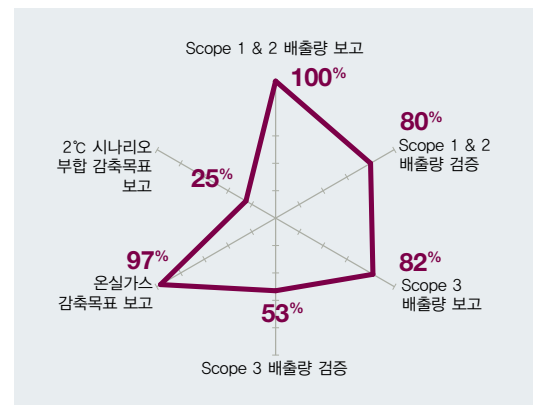
지표 및 목표

TCFD 권고안 - 지표 및 목표

해당 정보가 재무적으로 중요한 경우, 연관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와 목표를 공개

- a)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를 공개
- b) Scope 1, Scope 2,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 c)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목표 설명

한국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수준은 매우 높았다. CDP에 응답한 모든 기업이 Scope 1과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80%는 검증 받은 배출량을 보고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한 기업도 97%에 이르렀다. Scope 1과 2 배출량 산정, 검증 및 목표수립 비율이 높은 것은 의무 규제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규제와 무관한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한 기업(하나 이상의 카테고리 보고)도 82%에 이르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자체는 기업 내의 기본 업무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반감축목표 보고 기업 전무

하지만 감축목표의 수준은 해외 선도기업과는 격차가 있었다. 2°C 목표달성을 위해 CDP에서 제시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보고한 기업은 25%에 불과했으며, Scope 1과 2뿐만 아니라 Scope 3 목표까지 요구하는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의 인증을 거친 목표를 보고한 기업은 전무했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할당량 외에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적 관점의 목표 수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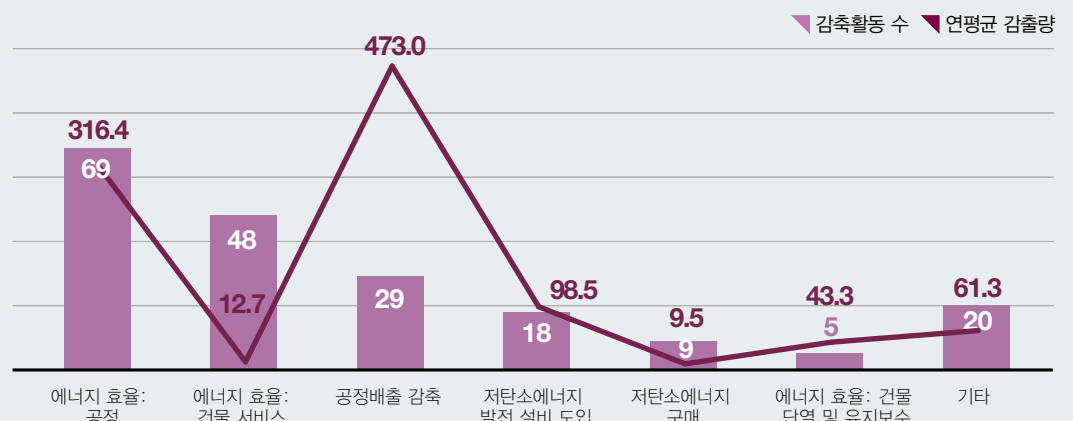
재생에너지 사용 통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

한국에서는 아직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 또한 한국기업의 적극적 감축목표

수립을 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 IT 등 전통 제조업 이외의 섹터의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감축옵션은 매우 제한적이다. 해외와 달리 재생에너지를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를 온실가스 산정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자사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되는 지점이다. 한국도 하루빨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배출량 감축활동 수 및 연평균 감축량

(단위: 개, 만ton/CO₂e)



Water Overview

글로벌 트렌드 분석

2,114

기업

2,114개 기업이 물 관련 리스크 및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 성과를 CDP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시가총액은 18조 달러에 달하며, MSCI ACWI 지수 상 물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53%가 설문에 응하고 있다. 이는 응답 기업 수가 175개였던 2010년에서 12배 증가한 수치다.

650

투자기관

총 87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기관이 기업에 사업이 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10년 137개 투자기관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36.4

백만명

36.4백만명의 인력이 CDP Water 프로그램을 통해 물 관련 정보를 공개한 상장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 인구와 맞먹는 숫자다.

628

도시

628개 도시(총인구 17억명)가 CDP를 활용해 회복 탄력성을 기르며 물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있다.

US\$2

조

44개 기관에서 매해 2조 달러 규모의 구매를 통해 공급망에 CDP를 통한 물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물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할 수 있다.

110

국가

CDP는 아프가니스탄,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및 잠비아를 포함한 110개 국가에 위치한 기업들이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Water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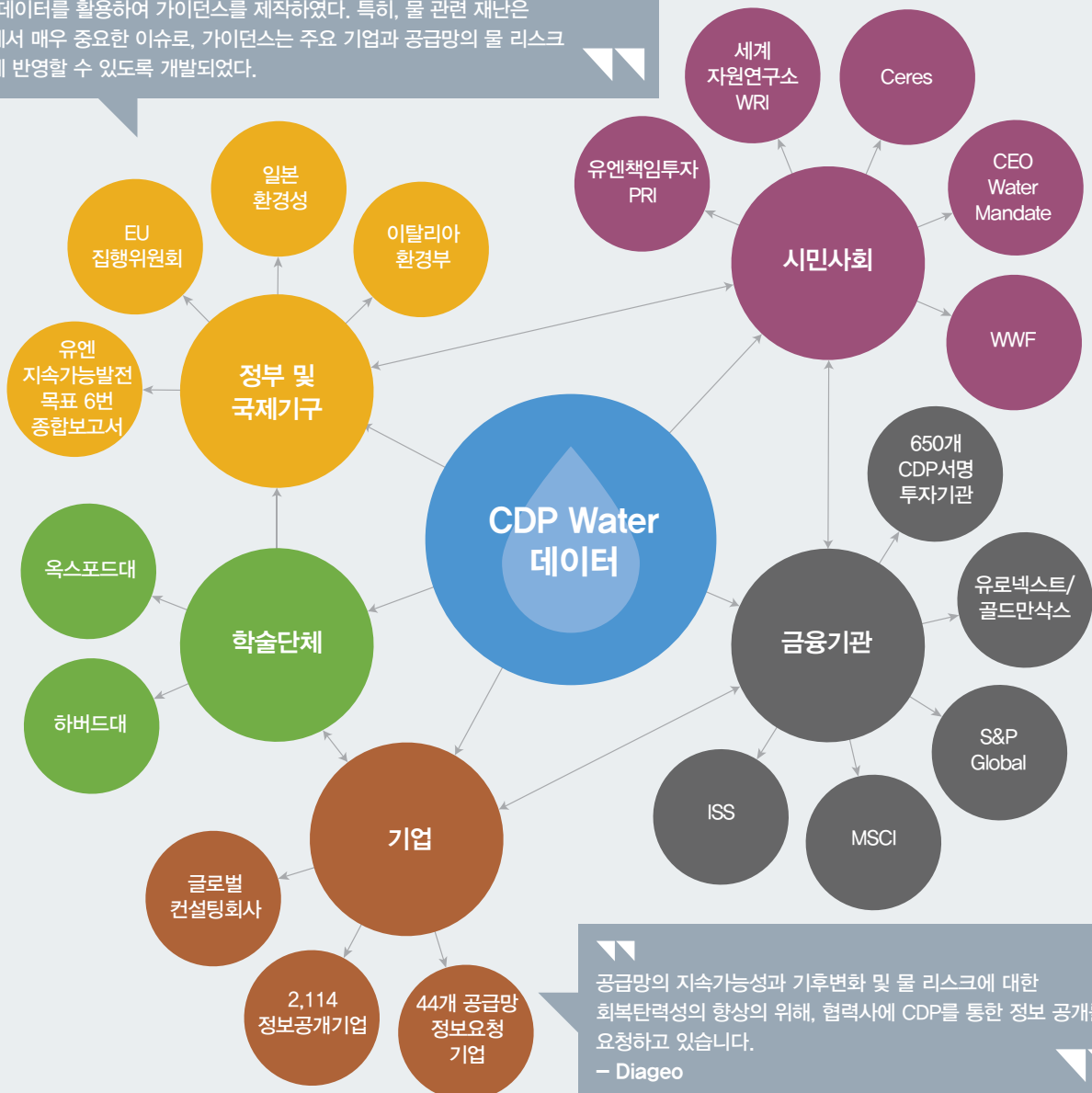
CDP Water 데이터 활용

CDP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비교가능하고 표준화된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수자원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2018년 CDP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보여준다.

CDP를 통해 보고된 물 관련 정보는 수백 개의 투자기관에 제공된다. 투자 연구, 상품 및 평가기준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CDP는 기업이 자사의 전략을 외부에 알리는 데 유용하다. 그뿐만 아니라 CDP는 여러 NGO, 정부 및 정책담당자와 협업하며 그들이 물 관련 이슈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한다.

일본의 환경성은 일본 기업의 물 리스크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CDP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이드언스를 제작하였다. 특히, 물 관련 재난은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가이드언스는 주요 기업과 공급망의 물 리스크 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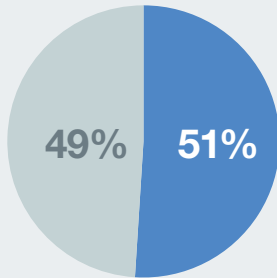


Water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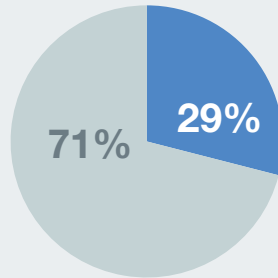
CDP Water 글로벌 기업 분석

주요 물 지표 관련 기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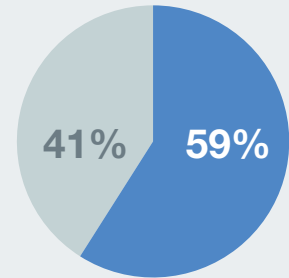
■ Yes ■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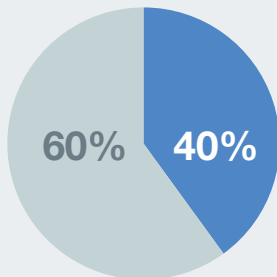
투자자의 물 관련 정보 공개요청에
응답한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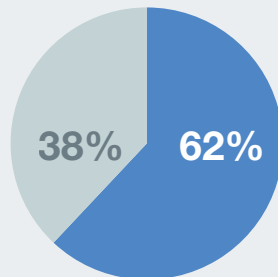
사업의 주요 단계에서 정량 또는
정성목표를 수립한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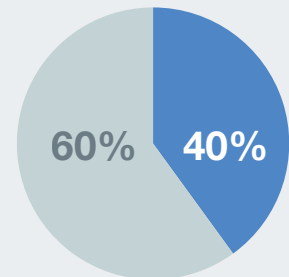
사업장별 물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기업 비율



지배구조와 전략에 물 관련 이슈를
통합한 기업 비율



포괄적인 물 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업 비율



물 관련 가치사슬 인게이지먼트
진행 기업 비율

물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 분포

전년 대비 2018년 취수량 변화: ▲ 전년과 동일 ▼ 증가 ▲ 감소 ▲ 측정 첫째



Water Overview

CDP Water 한국기업 현황 분석



투명성

CDP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답을 하는가?

2018년, 18개 국내 기업이 CDP를 통해 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정보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 투명성, 지배구조, 측정과 모니터링, 리스트 평가, 전략적 및 정성적 목표, 공급망 인게이지먼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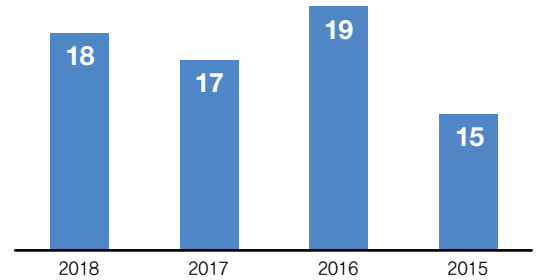
2018 CDP Water 한국 프로그램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했다. 물과 관련하여 취약한 산업에 속하거나, 물 사용량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응답 기업 수는 작년 17개에서 18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13개 기업이 응답내용을 '공개'로 선택하여 제출하였으며, 1개 기업은 정보공개 대상기업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CDP에 참여하여 물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섹터 별로는 6개 기업이 응답한 IT섹터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으며, 다음은 5개 기업이 응답한 선택소비재 섹터였다. 반면 유틸리티, 에너지 섹터는 응답한 기업이 없었다.

응답 기업이 없는 유틸리티 섹터, 에너지 섹터는 주로 발전 회사와 에너지 회사가 속한다. 일반적으로 발전 회사 및 에

CDP Water Korea 응답 현황

기업 수



너지 회사는 다른 섹터의 기업에 비해 물 관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공개 요구 수준도 높다. 두 섹터에 속한 기업은 물 관련 위험과 기회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높은 요구 수준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야 한다.



거버넌스 & 전략

- 기업의 이사회에서 물 관리 · 감독 기구가 있는가?
- 장기 사업 목표에 물이슈가 통합되어 있는가?
- 공개된 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물은 기업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 가운데 하나로, 기업의 물 관리는 필수이다. 관리는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전략 수립에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기업의 중요 안건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사회 멤버들은 상정되는 물 관련 이슈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업이 체계적인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 · 감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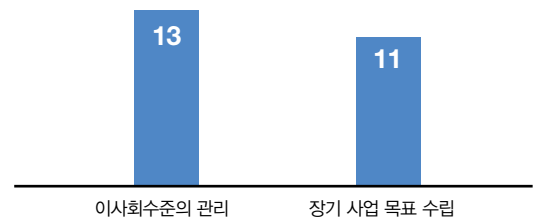
전체 응답기업 가운데 15개 기업이 물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그 가운데 13개 기업은 이사회 수준의 관리 · 감독을 기구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물 정책에 직 · 간접적 영향을 주는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사회에서 물 관련 이슈에 대한 관리 ·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관련 이슈가 모든 회의에 정기적으로 상정 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4개, 일부 회의에 정기적으로 상정 되는 기업 6개, 중요 이슈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상정되는 기업이 3개이다. 아직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물 관련 이슈로 인해 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기업은 없어,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물 관련 이슈에 대해 상정하는 것이 낮은 풍경 일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이 주로 가뭄, 태풍 등과 같은 물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나고, 한반도는 가장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물 이슈가 정기적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물 관련 거버넌스, 전략으로 가장 많이 수립한 항목

기업 수



물 관리를 위한 전략으로는, 물 관리를 장기 사업 목표에 포함시키는 기업이 11개로 가장 많았다. 2018년 CDP는 기후 관련 시나리오와 내부 물 가격 사용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으며, 해당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기업의 수는 각각 6개와 7개였다.



측정과 모니터링

물 관련 모든 영역을 측정하고 모니터링을 하는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 될 수 없다. 정확한 물 회계 정보는 목표 설정, 인계이지먼트 활동 등 모든 물 관련 사업을 계획하는데 기본 데이터로 사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측정·모니터링 해야 한다.

CDP에서 요구하는 12가지 모든 영역에 대해 전체 사업장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9개였다. 이 가운데, 자사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12가지 모든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5개였으며, 이들 기업은 또한 담수 이용 가능성의 중요성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많은 기업이 대부분의 물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 했지만 물 스트레스지역(Water stressed areas)으로부터의 취수량을 모니터링 하는 기업 수는 조금 적었다. 이는 기업들이 아직 물 스트레스 지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인식은 하고 있지만 충분한 모니터링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지역에서 총 취수량의 50%이상을 취수한다고 보고한 기업은 3개이다. 다행히 이 기업들은 모두 스트레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반면 대부분의 기업은 방류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물 관련 영역별 정기적으로 측정, 모니터링 하는 기업

기업 수

임직원 WASH 서비스 제공	13
재사용 / 재활용수	13
총 용수 소비량	13
방류수 수질 - 온도	11
방류 기준 별 수질	14
처리 방법 별 방류량	14
방류지 별 방류량	14
총 방류량	14
취수 수질	13
취수원 별 취수량	13
물 스트레스 지역으로부터의 취수량	10
총 취수량	13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류수의 경우 이미 정부의 규제 대상이거나 상대한 규모의 처리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리스크 평가

물 관련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는가?

물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량, 수질, 관련규제 등의 이슈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물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 물 관련 이슈와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반영할수록, 기업은 물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대응, 그리고 기업의 장기적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기회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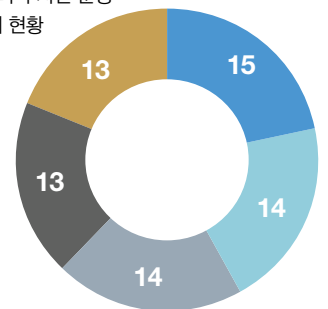
올해 물 관련 리스크 평가를 시행한다고 응답한 기업 수는 15개로, 전년도(16개)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국내 응답 기업이 리스크 평가시 가장 많이 고려 하는 대상은 규제이다. 반면 종업원, 투자자 및 기타 지역단위 이슈를 반영하는 기업의 수(11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리스크 평가 시, 전체 사업장에 대해 평가한다고 응답한 기업 수는 10개인 반면, 공급망에 대해 진행하는 기업 수는 5개에 불과했다.

리스크 평가시 주요 물 관련 이슈로 포함한다고 보고된 이슈 숫자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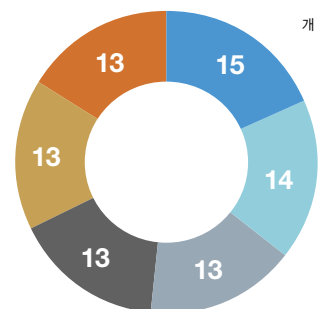
- 물 관련 규제
- 유역 내 수자원 이용가능성
- 유역 내 수질
- 유역 내 이해관계자와의 수자원 분쟁
- 생태 시스템 및 서식지 현황



리스크 평가시 주요 이해관계자로 포함한다고 보고된 이슈 숫자

개

- 규제기관
- 지역사회
- 고객
- NGOs
- 유역 관리기관
- 협력업체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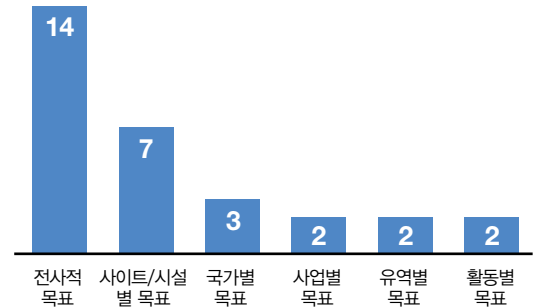
기업은 전사적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는 목표(정량적 및 정성적)를 수립하는가?

기업은 물 가용성과 수질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포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해야 한다. 기업은 비즈니스 성장과 동시에 물 관련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은 유역의 물 관련 수요에 맞추어 목표를 세울 때, 수자원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은 다수의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목표수준을 수립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기업은 전사적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 사업별, 활동별, 사이트/시설별, 브랜드/제품별, 국가별, 유역별로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전사적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는 목표를 수립한 국내 기업은 15개 이다. 전사적 (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수준으로 목표를 수립한 기업이 14개, 사이트/시설별 목표(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수립 기업 7개, 국가별 목표(정량적 및/또는 정성적) 목표 수립 기업 3개이다.

목표 수립시 목표 기준으로 설정한 기업¹

기업 수



공급망 인게이지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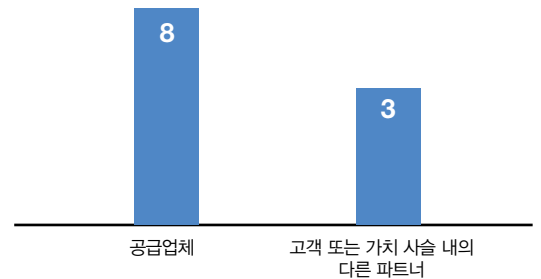
가치사슬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는가?

기업이 조달할 때 그들의 위치를 활용하면, 공급망에서 더 큰 속도와 규모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공급자로부터 물 관련 정보를 받은 구매자는 물 리스크 노출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공급자들 사이에서 지속가능한 행동을 장려할 수 있다.

가치사슬에 대한 물 관련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하는 기업은 11개다. 공급업체, 고객 또는 가치사슬 내의 다른 파트너 모두에게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하는 기업은 2개이며, 공급업체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업과 고객 또는 가치사슬 내의 다른 파트너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업은 각각 8개, 5개이다. 공급망 평가프로세스에 물 관리 및 수자원 책무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형이 가장 많으며, 공급업체 선정 절차에 수자원 책무 및 리스크 관리 반영 (1개), 수자원 책무 및 관리에 대한 보고기업의 행동강령 준수 요구(1개) 등 적응 & 준수를 통한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제품과 서비스에서 물 영향을 줄일 수 있는 혁신 촉진 및 인센티브 제공 (1개), 공급업체 대상 수자원 책무 및 협력 교육(1개) 등 혁신 & 협력을 통해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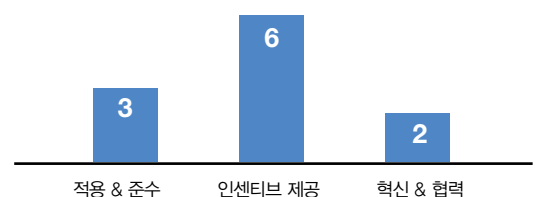
가치사슬별 인게이지먼트 활동한 기업¹

기업 수



인게이지먼트 활동시 사용하는 인게이지먼트 유형¹

기업 수



기관투자자의 기후변화 주주권 행사

일반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라고 표현한다. 주주자본주의는 주주 Shareholder의 이익 극대화를 기업 경영의 핵심목표로 둔다. 더불어 개별 주주들도 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에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주주자본주의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는 주주들의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주주권 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들도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자산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의 원소유자는 연금의 가입자나 자산의 위탁자이므로 이들을 대리인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임한 가입자나 위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의한 자발적 행동규범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무요소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한국은 2016년 도입했다. 2019년 4월 기준, 국민연금을 비롯한 94개 기관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도 올해 안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출처: 스튜어드십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자본시장연구원

주주권 행사 유형 및 강도¹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 전망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의결권 행사는 가장 약한 형태의 주주권 행사에 속한다.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 상정된 대표이사 연임 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가 의결권 행사의 대표적인 예이다. 매년 주총에서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에 직면했던 국민연금은 최근 지분 10% 이상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사전공개 하는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및 국민연금 이행방안

원칙1	고객, 수익자 등 타인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2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3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4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5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원칙6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7	수탁자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원칙 및 국민연금 이행방안

원칙 3

- 재무적, 비재무적(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주기적 점검
 - 환경: 탄소배출량, 용수사용량 등 12개
 - 사회: 급여수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여부 등 21개
 - 지배구조: 대표이사과 이사회 의장 분리여부 등 19개
- 점검결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 또는 기금본부가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개선대책 등을 요구하는 주주활동 추진

원칙 4

- 의결권 행사
- 중점관리사안 선정 및 비공개 대화
-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의 면담, 질의서·의견서 발송 등
- 공개서한 발송
- 주주 대표소송, 투자자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 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일찍부터 의결권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는 주주권 행사가 가장 활발한 영역 가운데 하나이다. 일례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은 투자대상기업에 서신이나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기후변화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정유회사 가운데 하나인 ExxonMobil의 경우, 주주제안을 통해 상정된 기후변화 관련 전략 수립 및 공개 요구에 대해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기도 했다.

실제로 기후변화는 ESG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주주제안이 제기되고 있는 영역이다.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도 원칙 3과 원칙 4에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ESG 요소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주권행사를 담고 있어, 앞으로 한국 기관투자자의 기후변화 관련 주주권 행사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제안 제도 개선 움직임

한국은 아직 주주제안을 통해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는 제도적 제약이 따른다. 법으로 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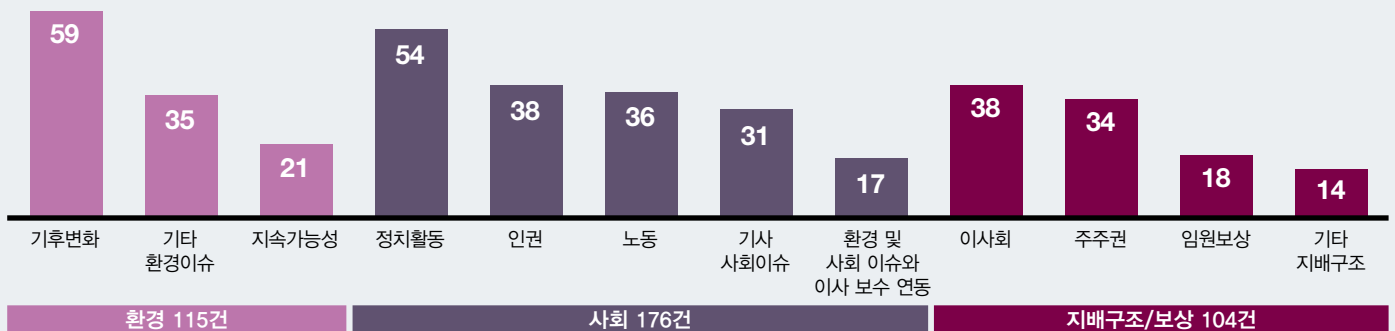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 주주제안 제도 비교¹

	한국	미국
근거	상법	Exchange Act (Rule 14a-8)
자격	3%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1% 또는 시가 2천달러 이상 1년이상 보유
제안범위	상법과 정관 규정 사항	업무관련성: 자산, 순이익, 매출 5% 이상 영업 부문 관련 사항
제안거부 가능 ²	가능 ²	가능 ³
거부절차	없음	있음 ⁴

제안이 가능한 안건을 상법과 정관에 정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제기된 주주제안에 대한 거부할 경우, 제안자에게 거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 또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부 가능한 안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거부 시 사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과 다른 점이다. 기관투자자의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활발한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지점이다.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출처: 스튜어드십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행사, 자본시장연구원
- 3년내 중복 제안(10% 미만 찬성) 안건, 개인고충 사항, 소수주주권 관한 사항, 임기 중 임원 해임,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 연방법, 주법, 규정 위반 안건, 이사회 선임, 구체적인 배당금액 사항, 경영자제안과 상충 안건, 중복안건, 실현할 수 없는 사항, 개인고충사항, 일상적 영업활동 사항
- 회사는 SEC와 제안자에게 80일 전까지 거부사유서 제출, 제안자는 SEC에 이의제기 가능
- 출처: ISS Analytics

2019년 미국 Russell 3000 기업 주주제안 내역 분석⁵



임원보상과 ESG 성과 연계

대상기업: Alphabet (Google)
제안자: Zevin Asset Management

주주제안 주요 내용

- 기업의 ESG전략 및 성과를 임원 보상과 연계 요구. 임원 구성비의 성, 인종, 민족 다양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고위 임원의 성과 지표 또는 보상요건과 연계하는 방안의 타당성 평가서 제출을 보상위원회에 요청.

인권과 연결된 물 관련 성과 지표 공개

대상기업: Chevron Corporation
제안자: Sisters of St. Francis of Philadelphia

주주제안 주요 내용

-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물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리스크를 면밀히 식별하고 대응책을 담은 이사회 보고서 발간을 요구. 보고서에 기업활동이 물 관련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와의 상의 내용, 물 인권 향상을 위한 Chevron 활동의 유효성 평가 계획 수록 요청.

재생에너지 목표 공개

대상기업: Goodyear Tire & Rubber
제안자: The Nathan Cummings Foundation

주주제안 주요 내용

- 이사회 감독하에 경영진이 기후변화 대응전략 보고서를 발간토록 요구. 경영진은 측정 가능한 전사적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채택하는 방안의 타당성 평가를 해야 함. 해당 보고서는 화석연료 사용과 연관된 기후변화 리스크를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른 방안의 평가도 포함해야 함.

파리협정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대상기업: Exxon Mobil
제안자: New York State Comptroller 및 29개 투자자

주주제안 주요 내용

- 2020년부터 파리협정의 지구온도 상승 목표와 연계된 단기·중기·장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연차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 목표 설정은 기업 운영 및 제품 생산에서 비롯된 온실가스 모두를 다뤄야 함.

한국,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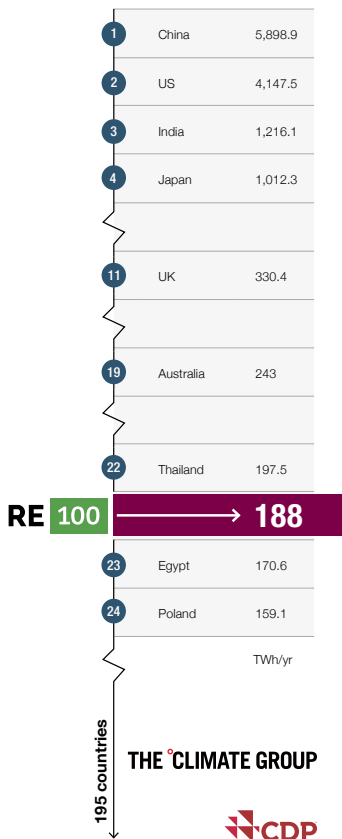
전 세계 170개 기업이 RE100 이니셔티브를 통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약속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20개 이상의 기업은 목표달성 또는 목표달성이 임박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100% 전환 선언 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하나도 없다. 선도적 대응보다는 규제 도입 이후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170개

RE100 가입기업 수

RE 100

RE100을 국가와 비교하면, RE100 전체 가입기업의 전력사용량은 세계 23위에 해당합니다.



재생에너지, 글로벌 기업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은 한국 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기업이 1.5℃ 또는 2℃ 목표 달성을 위해 과학계가 요구하는 감축에 부합하는 수준의 목표 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SBTi)에 참여한 기업의 수도 548개나 된다. 주목할 점은 이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애플, 구글, BMW 등은 2017년 전체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90% 이상(감축량 기준)이 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프로젝트였다.

이해관계자의 재생에너지 전환요구 증가

최근 확산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은 비단 온실가스 감축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고객사, 투자자, 소비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 대응도 글로벌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애플, BMW, 폭스바겐 등은 자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애플의 경우, 2020년까지 공급망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4GW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2018년 4월 기준 23개

협력업체(3GW 이상)가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전자, 삼성SDI, SK하이닉스, LG화학 등 다수의 한국기업도 이들 기업으로부터 자사에 공급되는 부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수립 시작

RE100 가입을 통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약속한 한국 기업은 아직 없다. 하지만 2018년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발표한 최초의 한국기업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한 해였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전체 사용 전력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SK하이닉스는 2022년까지 중국사업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언했다. 더불어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UNGC,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WWF 등 NGO가 연합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과 기업과 시민의 동참 확대를 목적으로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도 2018년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12개 기업이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수립하기로 선언했다.

해외 주요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전력 사용량 (비율)	감축활동 중 재생에너지 관련 활동 비중
애플	2020년까지 52% 감축	1,682,580 MWh (97%)	88.4%
구글	2025년까지 100% 감축	6,543,195 MWh (86%)	99.9%
BMW	2050년까지 100% 감축	1,995,010 MWh (77%)	96.2%
유니레버	2030년까지 100% 감축	1,581,065 MWh (53%)	15.3%
토요타	2050년까지 100% 감축	101,111 MWh (1%)	1.2%

삼성전자¹

미국, 유럽, 중국사업장
202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SK하이닉스

중국사업장
2022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

한국,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서둘러야

한국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부진한 것은 기업만의 책임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해외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장기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재생에너지구매계약(PPA), 전력을 공급하는 유틸리티기업에서 제공하는 재생에너지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 별도로 거래되는 재생에너지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안의 3가지 유형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3가지 방안 모두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 더불어 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규정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가로 막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이다.

다행인 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도 해외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흐름과 국내 기업의 현실을 인식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회신

한국 재생에너지 소비 촉진 제도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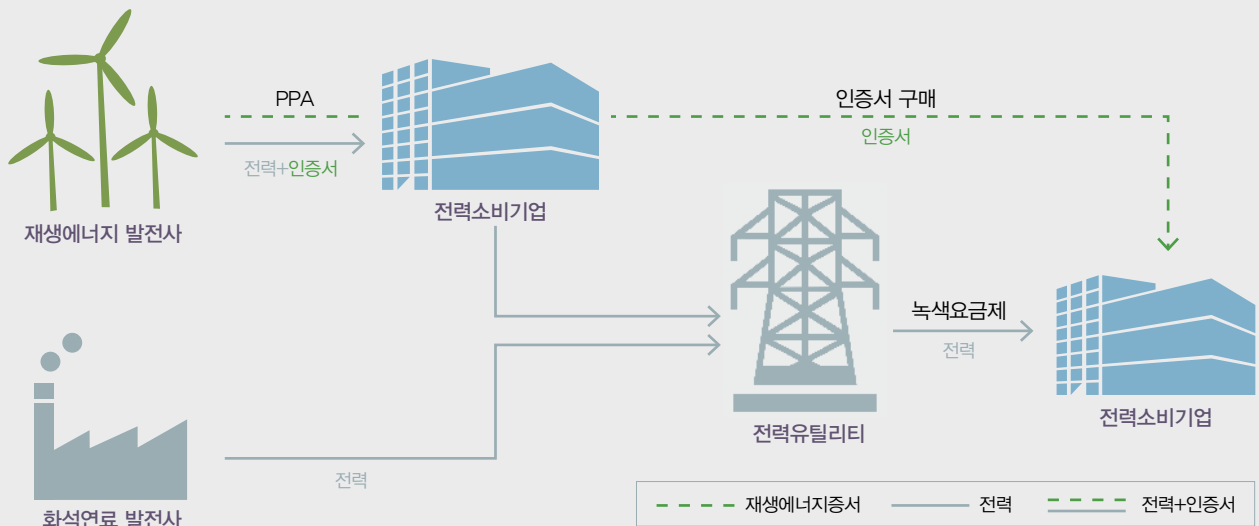
자가용 투자 촉진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2020년까지 한시도입) 적용기간 연장 검토 * 자가 발전량 50%를 전기요금으로 할인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녹색요금제 도입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지분 참여 등) 실적 인정

재생에너지포럼 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이원욱의원은 재생에너지 구매 및 재생에너지 라벨링 제도 도입 등의 재생에너지 4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도 2019년 내 녹색요금제 도입을 확정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는 해외 상황과 비교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추가 도입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기대한다.

1. 2018년 미국지역 100% 달성
2. 출처: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재생에너지 구매 방안



전력구매계약(PPA)

- 재생에너지발전사와의 직접계약을 통해 전력과 인증서 동시 구매하는 방안
- 장기 고정가격 계약이 일반적이며, 발전사와 구매자의 계통연결 여부에 따라 물리적 PPA와 재무적PPA로 구분

재생에너지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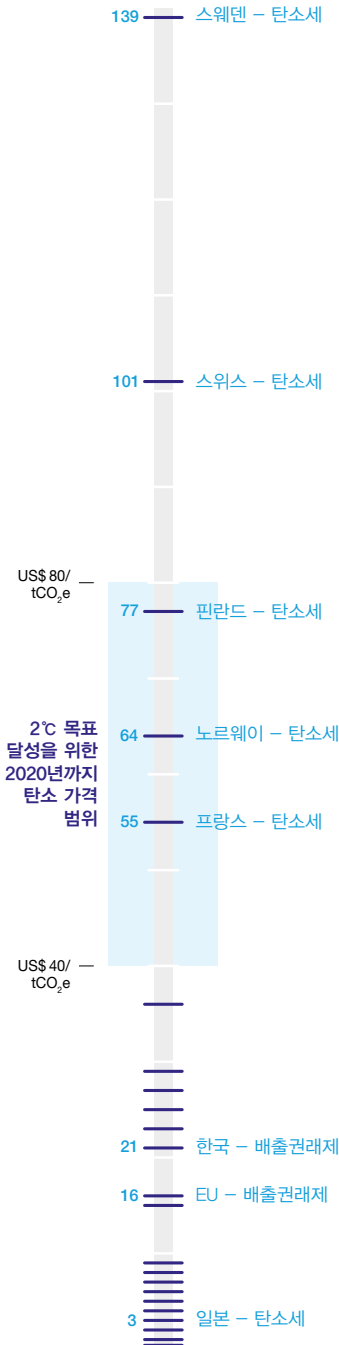
- 전력과는 분리된 재생에너지인증서만을 별도로 구매하는 방안

녹색요금제

- 전력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요금제 가운데 녹색요금제(또는 재생에너지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

내부탄소가격, 저탄소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작

주요국 온실가스 가격¹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정상들이 매년 모이는 이슈는 기후변화가 유일하다.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 인권,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경제계는 기후변화가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파리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기존 경제시스템 혁신적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UN환경계획은 지구평균온도 상승 1.5°C 혹은 2°C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24GtCO_{2e} (22GtCO_{2e}-30GtCO_{2e})와 40GtCO_{2e} (38GtCO_{2e}-45GtCO_{2e})로 예측했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분석한 결과, 2030년까지 예상배출량은 56GtCO_{2e} (52GtCO_{2e}-58GtCO_{2e})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수준을 달성하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2030년 탄소예산 및 배출량²

1.5°C 목표 대비 배출량 격차 42 GtCO _{2e}	2°C 목표 대비 배출량 격차 16 GtCO _{2e}	NDC 달성 시, 예상배출량 56 GtCO _{2e}
1.5°C 탄소예산 24 GtCO _{2e}	2°C 탄소예산 40 GtCO _{2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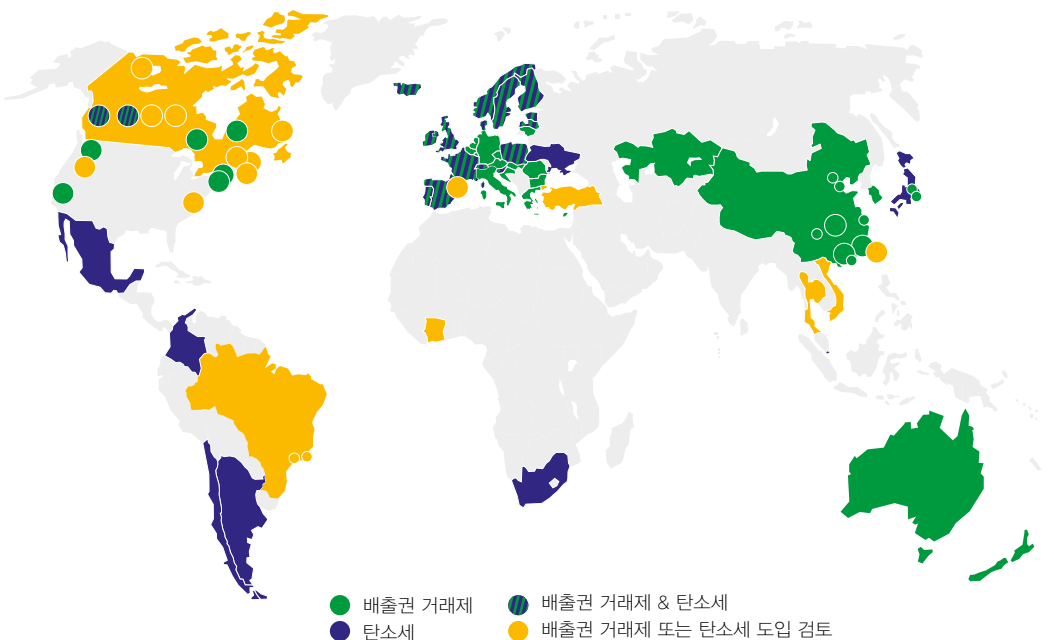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는 파리협정문 4조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스스로 결정한 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을 5년단위로 제출 및 이행해야 하며, 차기 기여방안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되고 최고 수준의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파리협정 비준국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목표와 감축활동을 국제사회로부터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가격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 수단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여하는 배출권거래

제나 탄소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NDC 제출국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6%를 차지하는 88개 국가가 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7개 성에서 진행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이어, 2020년부터 전국 단위의 거래시장 출범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은 기존 3,000원/tCO_{2e} 수준의 탄소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권 거래제 & 탄소세 시행 국가 및 지역¹



1. 출처: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18, World Bank
2. 출처: Emissions Gap Report 2018, UNEP

EU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연평균 95gCO_{2e}/km대
95유로/gCO_{2e} 벌금

2°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 \$40 - \$80 수준으로 상승 필요

배출권거래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EU와 한국의 평균 배출권 가격은 \$15/tCO_{2e} - \$25/tCO_{2e} 수준이다.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가 합의한 2°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이 지금보다 2배에서 4배 높아져야 한다. 한국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채택된 1.5°C 특별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경우, 파리협정의 이행이 시작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배출권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상승폭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내부탄소가격, 저탄소경제 대비 핵심 수단

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래의 달라질 환경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 세계 522개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가격이나 탄소세와는 별도로, 투자를 비롯한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별도의 탄소가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26개 한국기업도 내부탄소가격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들 기업이 보고한 내부탄소가격 수준은 다양했다.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가진 기업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의사결정에 이를 반영하는 반면, 낮은 내부탄소가격을 보고한 기업의 경우, 기후변화 관련 투자에 보수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 가장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 설정

자동차산업에 속한 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바겐은

633유로/tCO_{2e}, BMW는 633유로/tCO_{2e}의 내부탄소가격을 보고했으며, 일본의 نيسان자동차는 30,000엔/tCO_{2e}을 보고했다. 이는 강화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EU의 경우, EU 지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해 2020년부터 해당 연평균 95gCO_{2e}/km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초과 1gCO_{2e}당 95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배출량 수준으로는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에 따라 수 천억원의 벌금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이다.

현대자동차,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 설정

한국에서도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산업에 속한 현대자동차가 10만원/tCO_{2e}의 가장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보고했다. 하지만 해외 자동차 기업이 정한 수준과는 아직 큰 격차를 보였다. 향후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내부탄소가격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 가격의 평균 수준에 머물렀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채택이 예상되는 1.5°C목표,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별 감축목표의 갱신조약, 한국 감축목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국가 감축목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배출권 할당 방법으로 부여되는 기업의 감축책임도 비례하여 올라갈 것이다. 1.5°C 또는 2°C 목표는 전 세계가 약속한 확정된 미래이다. 눈앞에 보이는 미래를 부정하고, 위험이 현실화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저탄소 경제의 새로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강화된 내부기준을 설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26개

내부탄소가격 도입 기업 수

기업명	내부탄소가격
현대자동차	10만원/tCO _{2e}
LG화학	3만원/tCO _{2e}
KT	2.5만원/tCO _{2e}
삼성전자	2.2만원/tCO _{2e}
포스코	2.2만원/tCO _{2e}

글로벌 522개

내부탄소가격 도입 기업 수

기업명	내부탄소가격
폭스바겐	633유로/tCO _{2e}
시티그룹	68달러/tCO _{2e}
닛산자동차	30,000엔/tCO _{2e}
로알더치엘	40유로/tCO _{2e}
내셔널그리드	45파운드/tCO _{2e}



CDP 2018 Korea Best Practice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벌비스

SK하이닉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주요 통계 및 부록

Climate Change 주요통계

Water 주요통계

부록 I. CDP 2018 Climate Change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부록 II. CDP 2018 Water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부록 III. CDP 2018 Climate Change Korea 기업별 현황

부록 IV. CDP 2018 Water Korea 기업별 현황



신한금융그룹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이사회 산하기구인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친환경 경영 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실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 및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탄소경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는 전 세계 금융 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이하 PRB)'을 공동 제정·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은 파리 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을 위한 금융 산업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경제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이 사업전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6개 NGO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을 넓히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촉진하는 데 동참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예금, 펀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친환경 금융 상품을 출시하여 고객들과 함께하는 지구환경 개선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투자 확대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 제공 등 환경과 관련한 노력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 시중은행 최초 외화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비롯해, 친환경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여신상품,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이 있으며, 그 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자동차 보험상품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목표관리제 참여 기업으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본점 및 영업점 LED교체 공사 및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준공될 KB금융그룹 통합IT센터는 업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구축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 준공될 KB국민은행 통합사옥 또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활용, 중수 재활용, 녹지 공간 확보 등 친환경건축물로 조성되어 그룹 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KB 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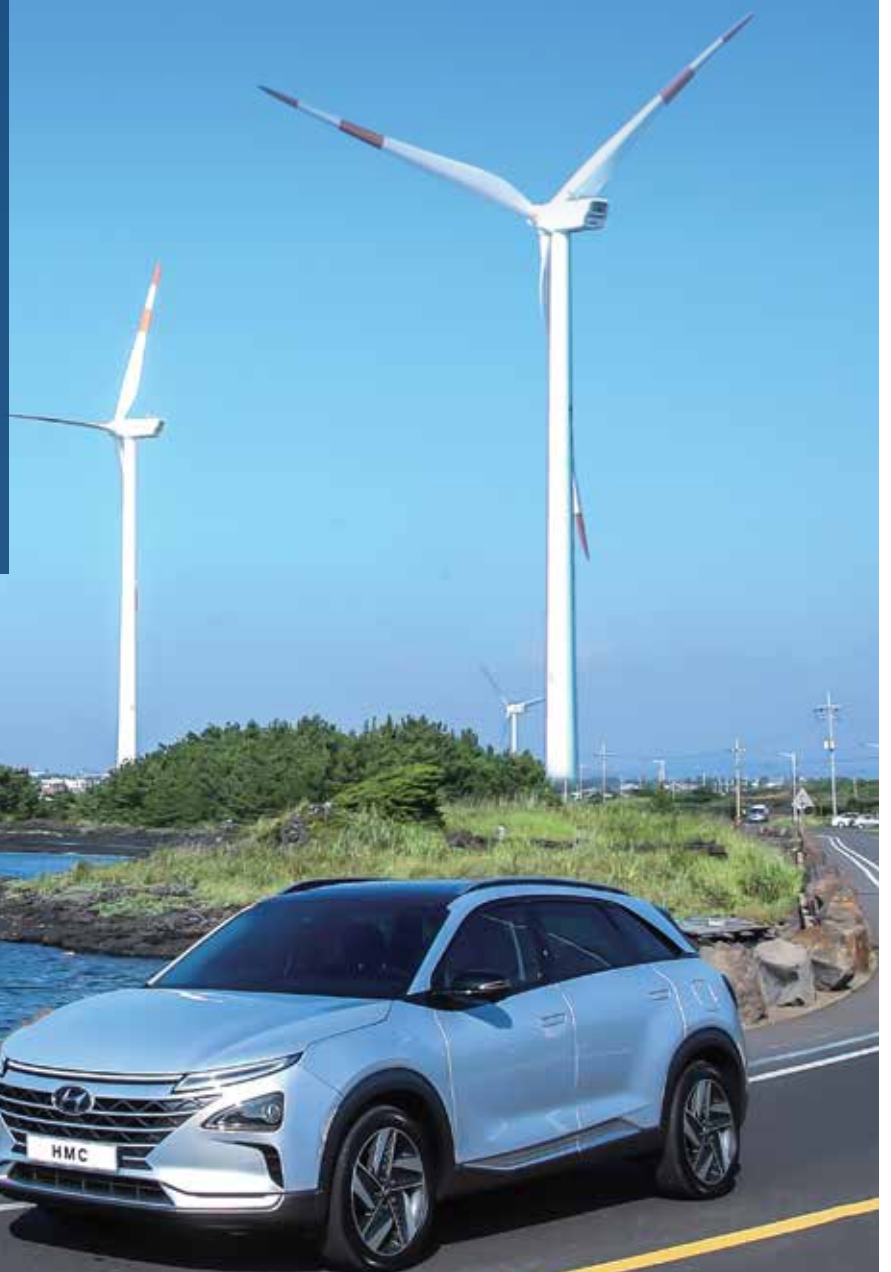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국제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환경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여, 환경차 개발과 판매 확대 뿐 아니라 R&D, 생산, 구매,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밸류체인에 걸쳐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효율성 제고와 함께 친환경 자원 및 에너지로의 전환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환경차 측면에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이후 2018년에는 수소전기차 전용모델인 '넥쏘'를 출시하였고, 1회 충전 항속거리 406km인 전기차 '코나'도 출시하여 이동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향상된 환경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내연기관 차량을 적극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 측면에서는 고효율 설비 도입, 폐에너지·폐열 회수 재활용을 하고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하기 위한 환경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여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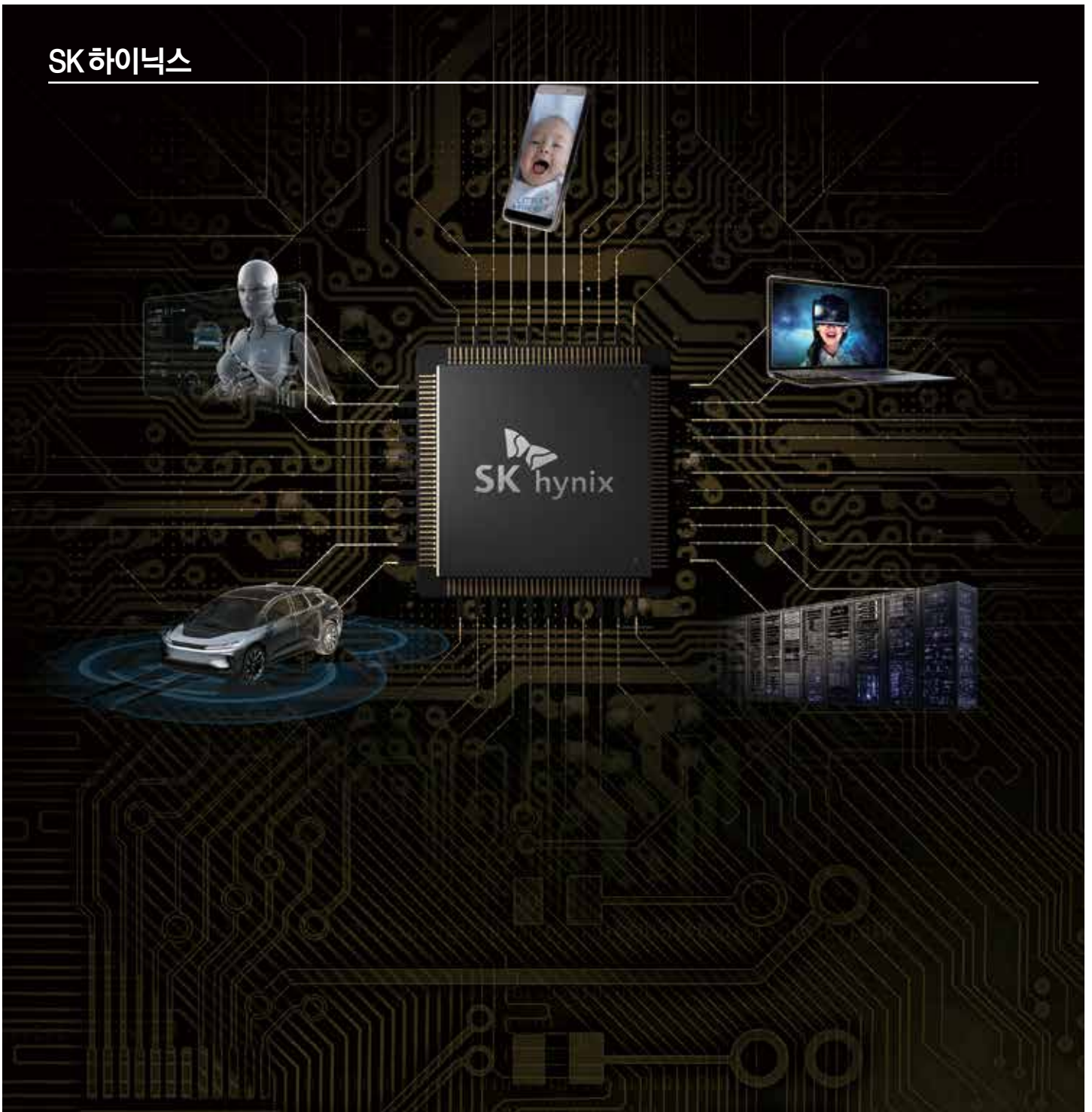
글로벌 종합물류유통기업인 현대글로벌비스는 신기후체제 및 대내외 환경정책에 발맞춰 친환경 녹색물류를 실천하고자 차량, 선박, 물류센터 등 SCM(Supply Chain Management) 전반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물류수송부문 로드맵 수립과 환경부의 민간기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 수립 프로젝트 등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량과 선박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연비를 개선하였으며, 도로운송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연안해송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Modal Shift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2018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그린경영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 장관배 연비왕 선발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대글로벌비스는 물류유통 분야 Leading Company로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현대글로벌비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한 이래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후 배출되는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장치인 스크러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크러버 온실가스 저감효율을 국가표준에 맞게 측정 관리하여 온실가스 처리 효과를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전력, 고효율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인증인 물발자국, 탄소발자국과 저탄소발자국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량적 환경영향 저감목표를 포함한 2022 ECO Vision을 선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사업장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의 하나로, 2019년에는 전 세계 14개 기업만 획득한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Silver 등급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세상을 바꾸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라는 비전 아래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 냉·난방 공급을 위해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집단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는 타 난방방식 대비 온실가스를 51%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30% 높은 우수한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집단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소각열, 매립가스 등의 미활용 에너지와 태양광, 우드칩, 하수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지역난방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열병합발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광물탄산화 기술, 미세조류 이용 전환기술 등 CCUS 분야의 연구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2018년 환경부 및 영국 카본트러스트社로부터 탄소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저감 30%를 목표로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은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Clean & Smart Energy Leader' 비전 아래 파리 신기후변화 협약체제 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최초 선박육상전원공급장치 실증성공, 대규모 수상태양광 운영(군산 수상태양광 18.7MW), 영동예코발전본부 바이오연료 전환(125MW) 등 온실가스 자구적 감축노력 강화를 비롯하여 국내최초 Carbon Desk 운영 등을 통해 국제 탄소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및 용수사용 감축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영국 카본트러스트社로부터 탄소 및 수자원 부문 글로벌탄소경영인증을 연속('16, '18)하여 획득하였습니다.

환경과 인간을 사랑하는 한국남동발전!

행복한 저탄소경영 선도기업으로 나아가는 한국남동발전의 내일은 그 가치가 새롭게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남동발전



Climate Change 주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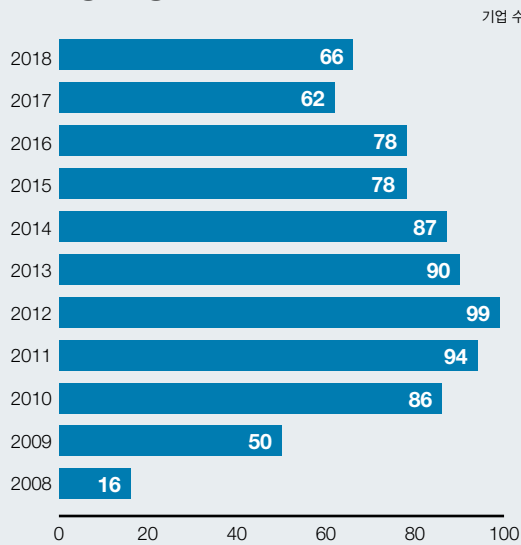
모든 분석은 CDP 2018에 응답한 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Scope1 또는 Scope2 배출량 공개 기업 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으로 입력한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Reporting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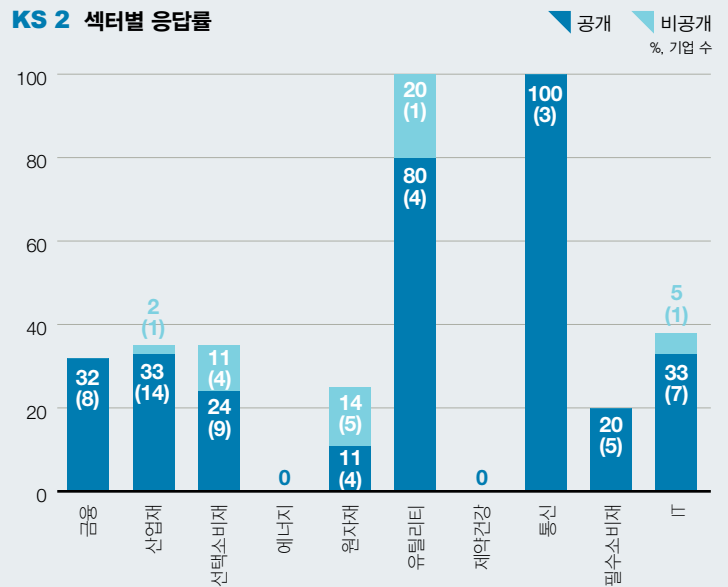
기후정보공시표준화위원회(CDSB)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기업의 주류 보고서에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조직으로, CDP의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CDSB의 기후변화보고프레임워크(CCRF)는 기업이 기후변화 위험/기회가 전략, 재무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류 재무보고서를 통해

공개/연결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CCRF는 기존 재무보고서의 목적 및 비재무보고서의 방법론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통합보고의 원리를 기후변화 보고에 적용하기 위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cdsb.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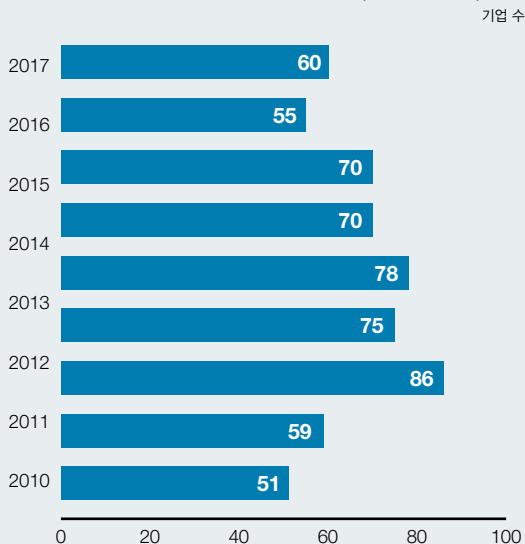
KS 1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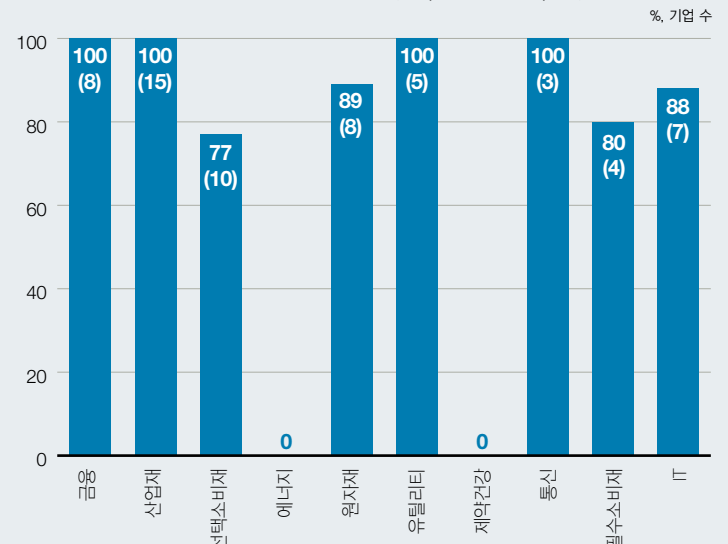
KS 2 섹터별 응답률



KS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기업 (Scope 1 또는 Scope 2)



KS 4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비율 (Scope 1 또는 Scop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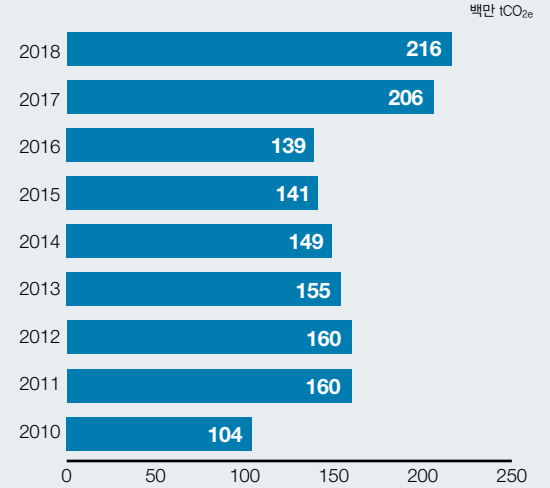


Scope 1, 2 배출량은 보고기업 범위 및 응답기업 수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영향이 포함되어 있는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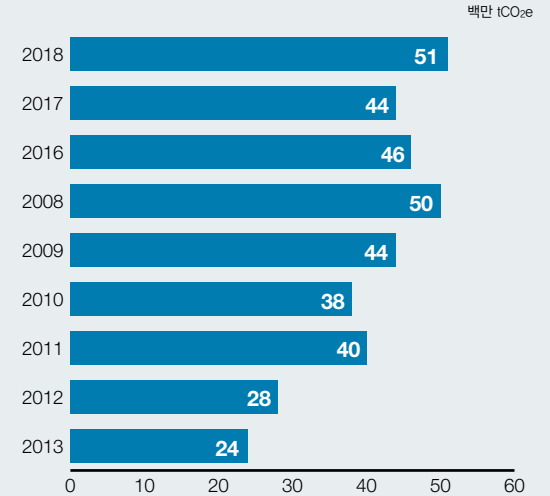
Greenhouse Gas Protocol Scope 3 Standard의 15개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입력한 기업 가운데 배출량 수치가 0(zero)이상이며, 해당 Scope 3 카테고리가 “관련있음”을 선택한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업스트림” 또는 “기타 다운스트림” 항목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는 이 두 항목을 통해 보고한 Scope 3 배출은 15개 카테고리를 통해 보고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질에 대한 높은 요구 수준에 부합하기 위해, CDP는 응답서 내의 데이터에 대한 검증/보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섹션의 검증관련 통계는 기업이 첨부한 검증의견서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검증/보증”을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해당 문건을 첨부하지 않았거나, 첨부문건이 CDP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점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이 하나 이상의 Scope를 검증 받은 경우, 중복하지 않고 하나로 처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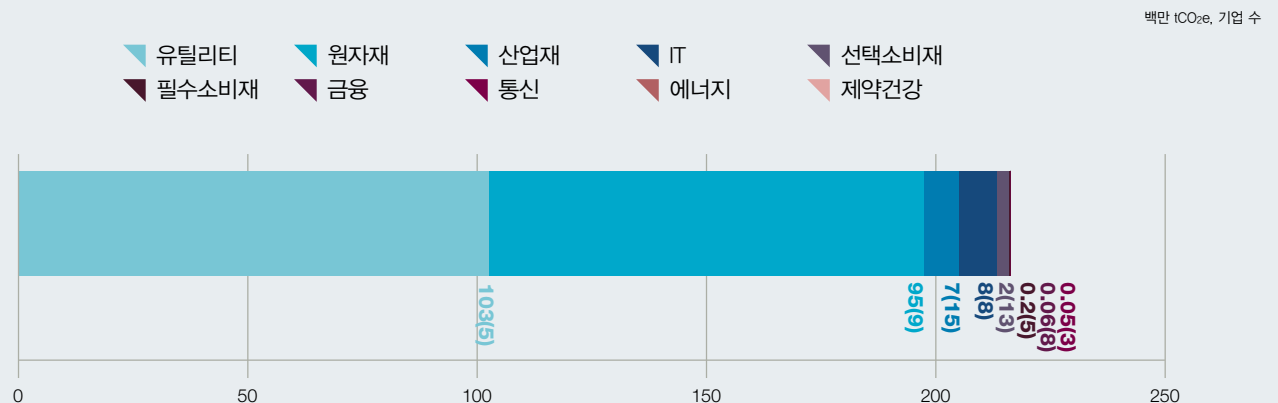
KS 5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KS 6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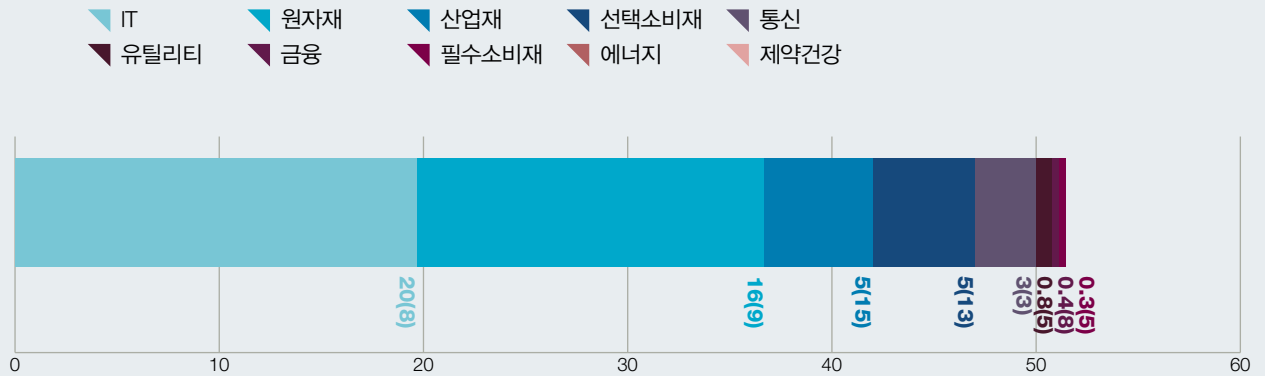


KS 7 섹터별 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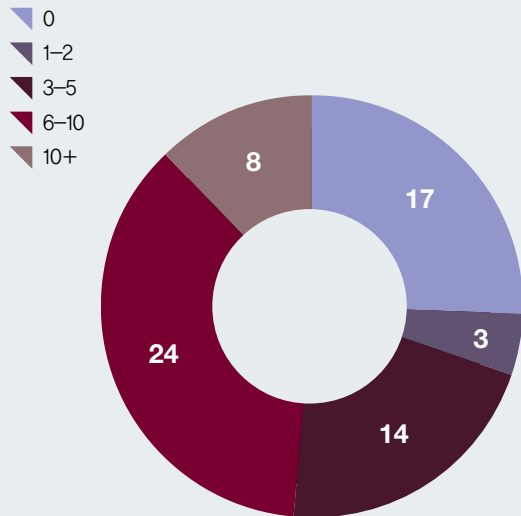
KS 8 섹터별 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 tCO₂e,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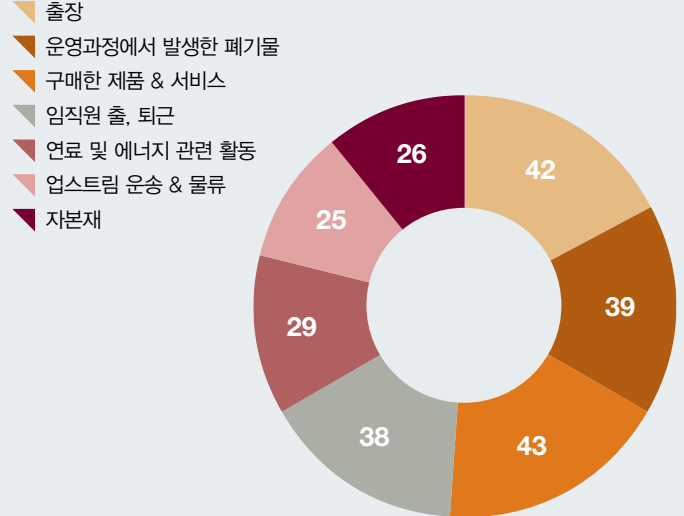
KS 9 SCOPE 3 배출원 및 배출량 공개기업¹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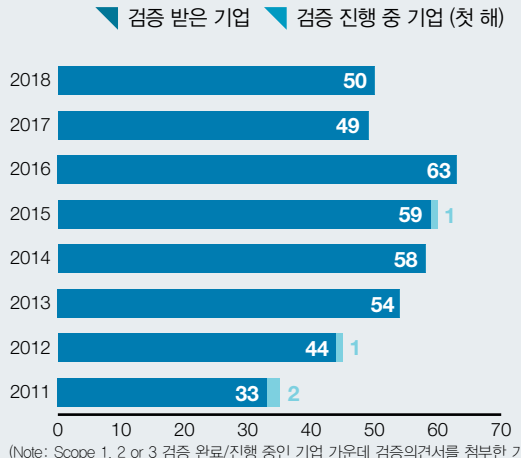
KS 10 SCOPE 3 주요 배출원²

배출원별 응답기업 수



KS 11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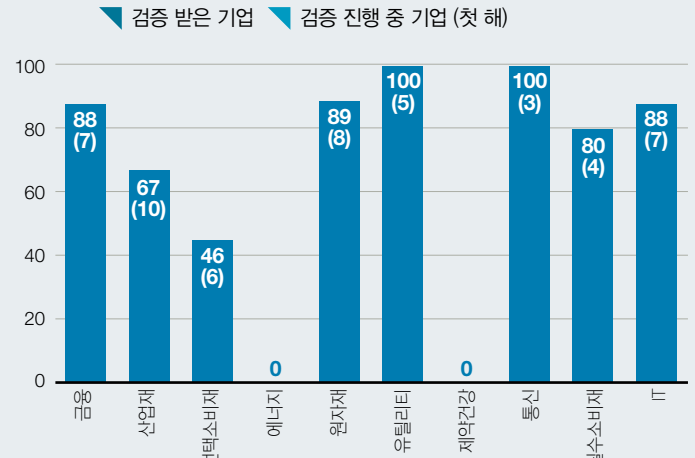
기업 수



(Note: Scope 1, 2 or 3 검증 완료/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검증의견서를 첨부한 기업)

KS 12 섹터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기업 현황³

비율,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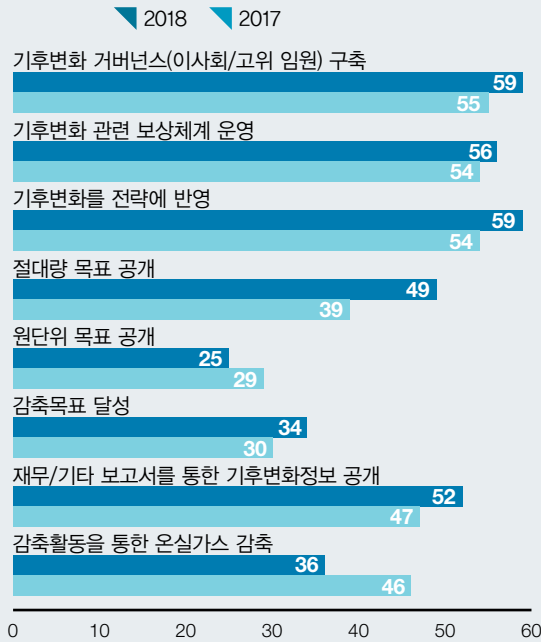


1. CDP 질의서 6.5 문항에서, 각 카테고리 별로 "relevant, calculated" 항목을 선택한 기업만 분석에 포함

2. "relevant, calculated" 항목을 선택하고, 배출량을 입력한 기업의 카테고리만 산정

3. Scope 1, 2 or 3 검증 완료/진행 중인 기업 가운데 검증의견서를 첨부한 기업)

KS 13 CDP KOREA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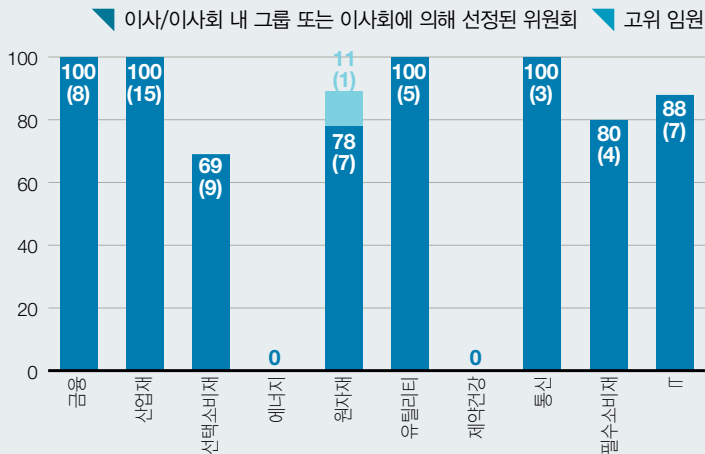
본 섹션의 온실가스 감축(절대량, 원단위)목표 관련 통계는 기준연도, 목표연도, 감축비율, 목표설정단위(원단위 목표의 경우)를 모두 입력한 기업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감축활동, 감축목표 또는 인센티브를 입력한 기업의 경우, 각각 입력한 활동, 목표, 인센티브의 수와 관계 없이 하나로 집계하였습니다. (단, “절대량 감축목표와 원단위 감축목표”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경우, 절대량과 원단위 목표 카테고리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반영하였습니다)

KS13의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 정보공개 여부 관련 통계의 경우, 해당 보고서의 실제 첨부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한 모두 기업 통계에 반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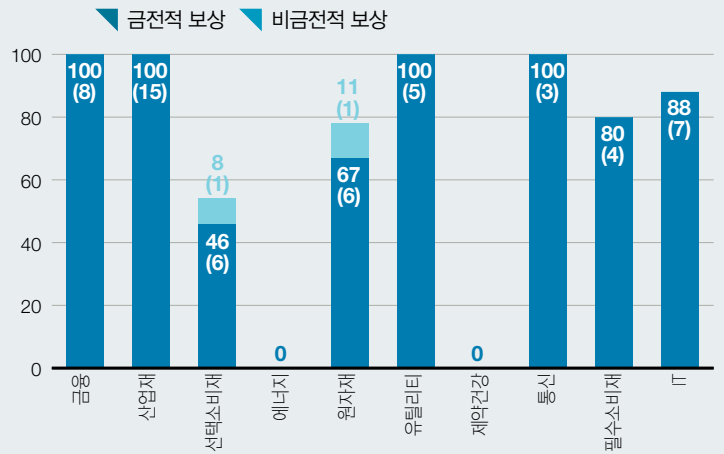
KS 14 섹터별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업 비율

비율,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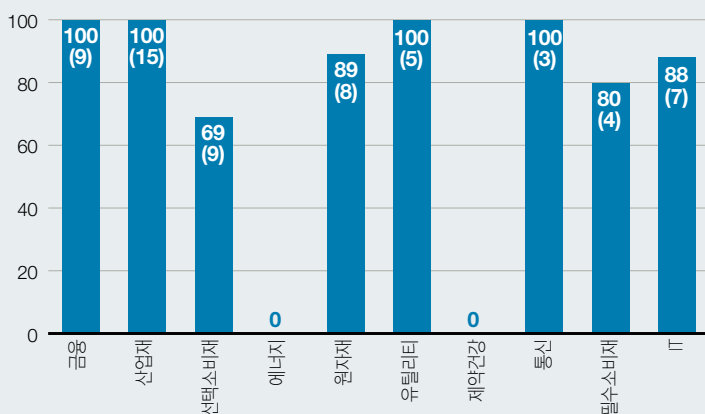
KS 15 섹터별 기후변화 관련 보상시스템 구축 기업 비율

비율,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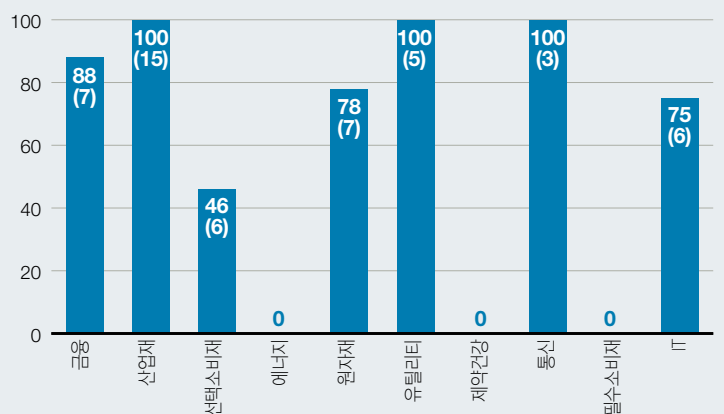
KS 16 섹터별 기후변화 전략 반영 기업 비율

비율,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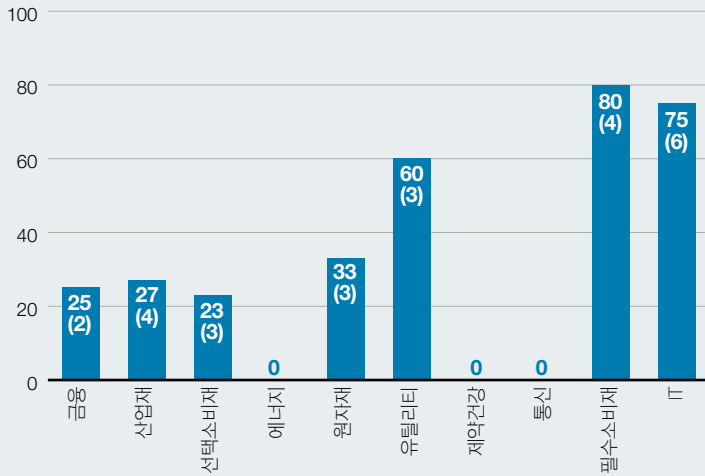
KS 17 섹터별 절대량 목표 공개 기업 비율

비율,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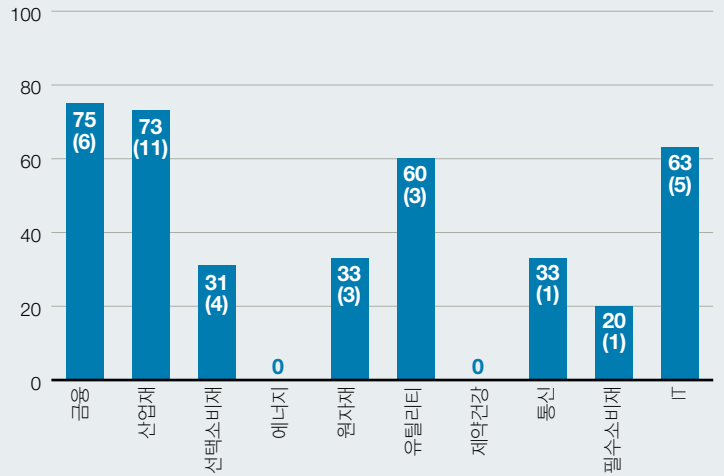
KS 18 섹터별 원단위 목표 공개 기업 비율

비율,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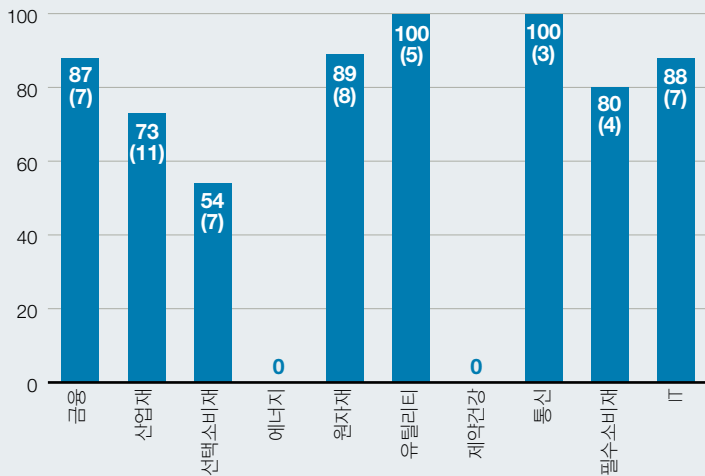
KS 19 섹터별 감축 목표 달성 기업 비율

비율, 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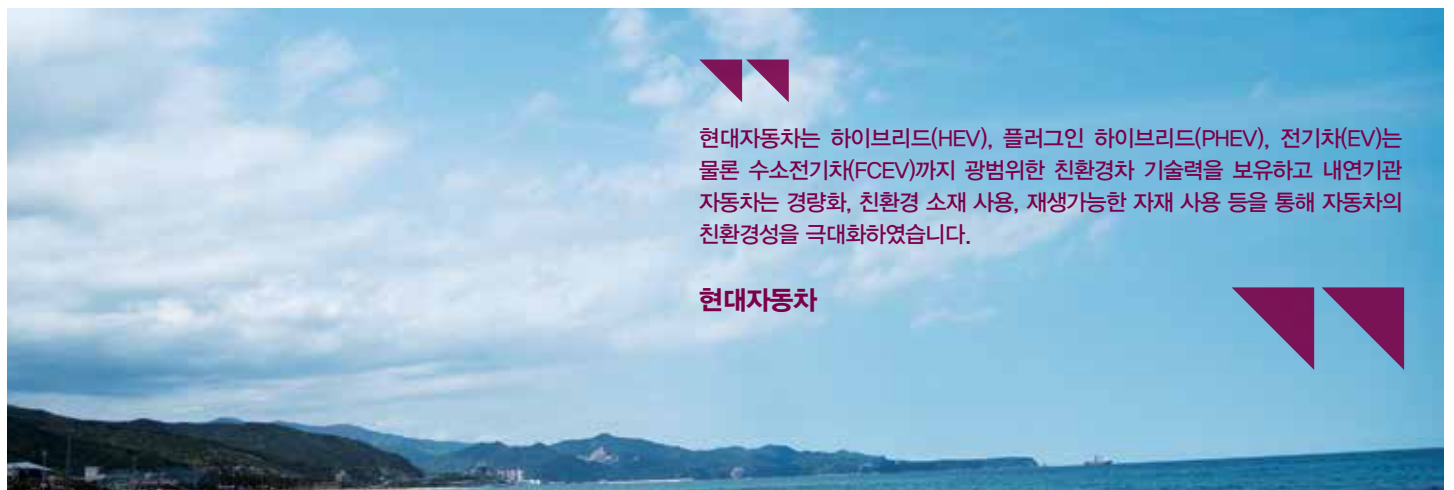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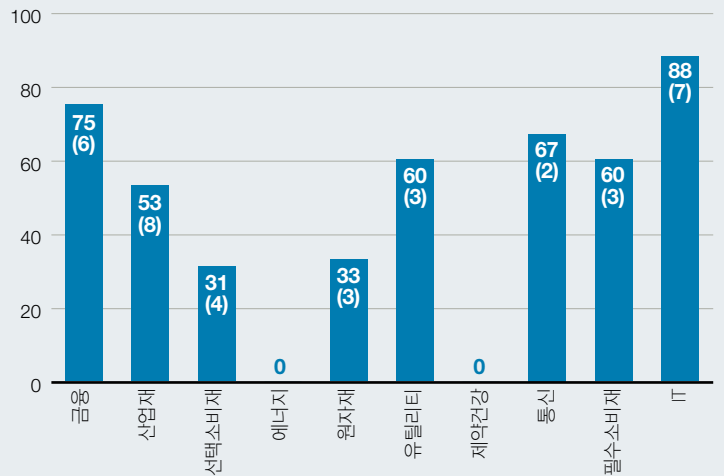
KS 20 섹터별 재무/기타 보고서를 통한 기후변화정보 공개 기업 비율¹

비율, 기업 수



KS 21 섹터별 (감축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업 비율

비율, 기업 수



현대자동차는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는 물론 수소전기차(FCEV)까지 광범위한 친환경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경량화, 친환경 소재 사용, 재생가능한 자재 사용 등을 통해 자동차의 친환경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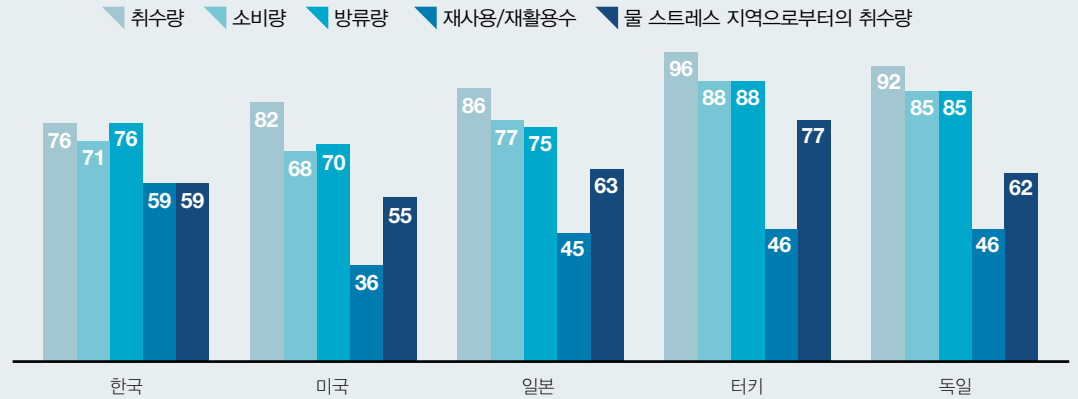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1. 재무 또는 기타 보고서 첨부 기업만 산정

Water 주요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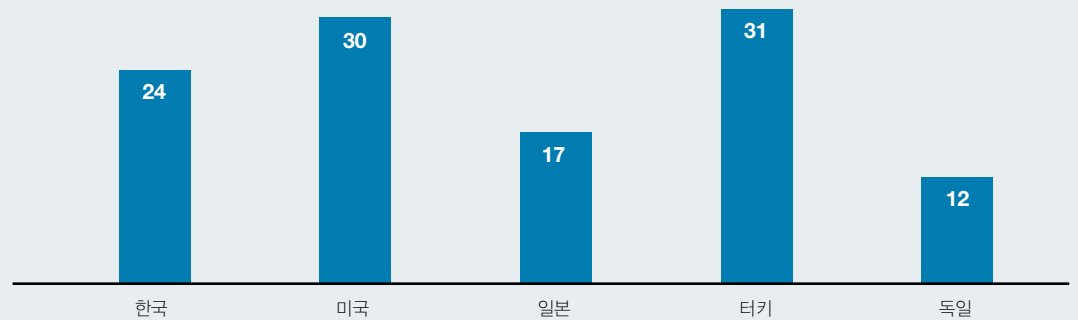
KSW 1 유형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측정 / 모니터링하는 기업 비율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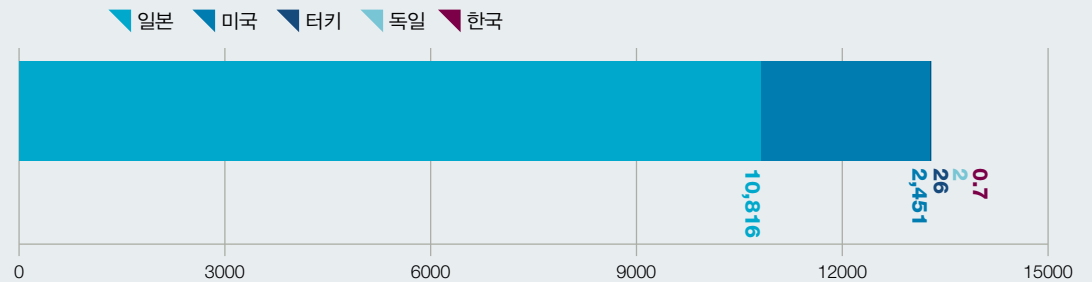
KSW 2 물 관련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기업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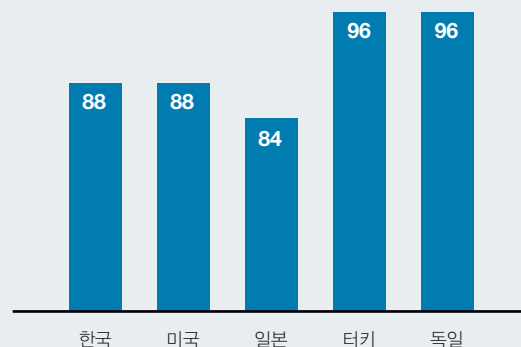
KSW 3 물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재정적 가치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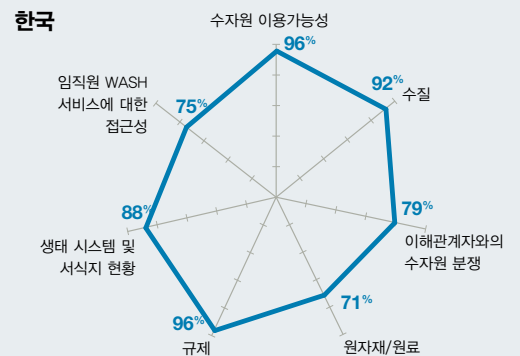
KSW 4 물 관련 리스크 평가 진행 기업 비율

%



KSW 5 물관련 이슈별 리스크 평가 반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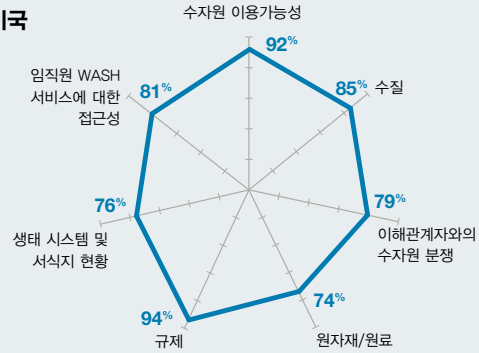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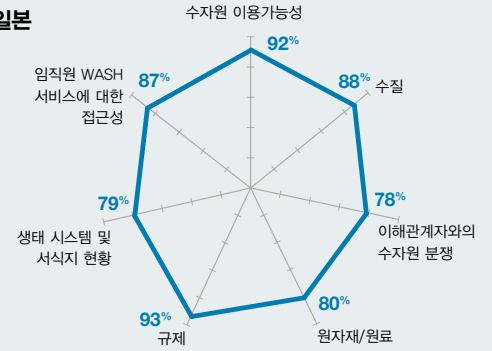
1. 모든 사업장의 75%이상을 측정/모니터링 한다고 응답한 기업에 한하여 계산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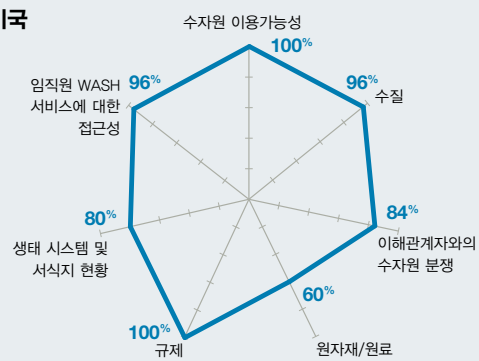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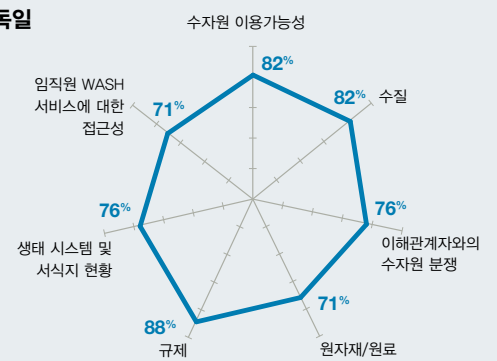
일본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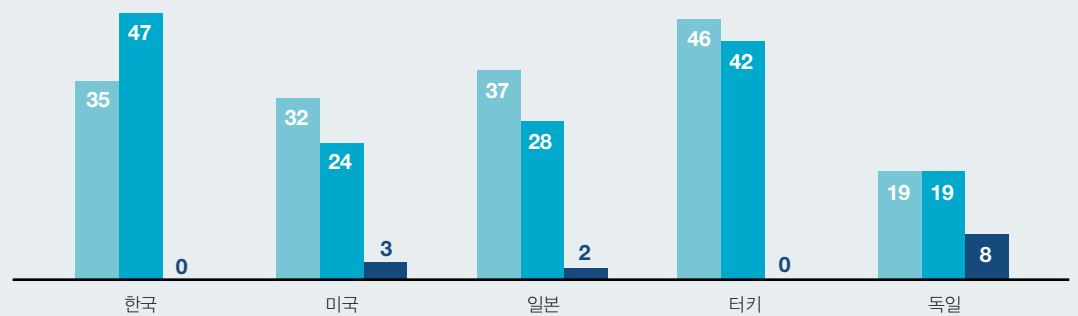
독일



KSW 6 중대한 물리스크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한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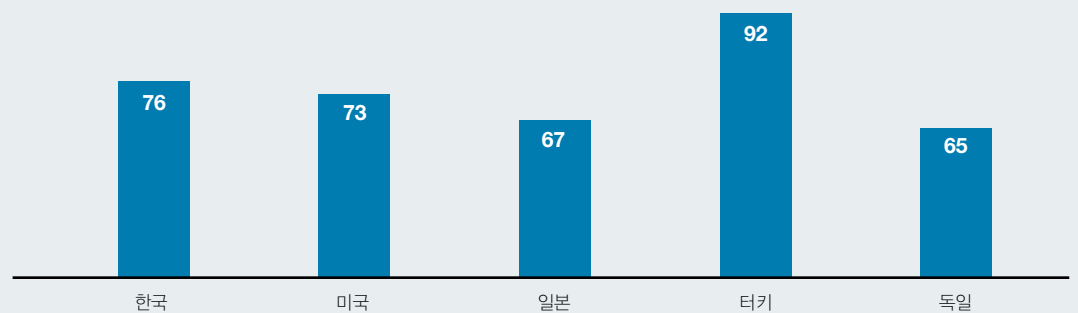
%

■ 사업장과 가치사슬 ■ 사업장 ■ 가치사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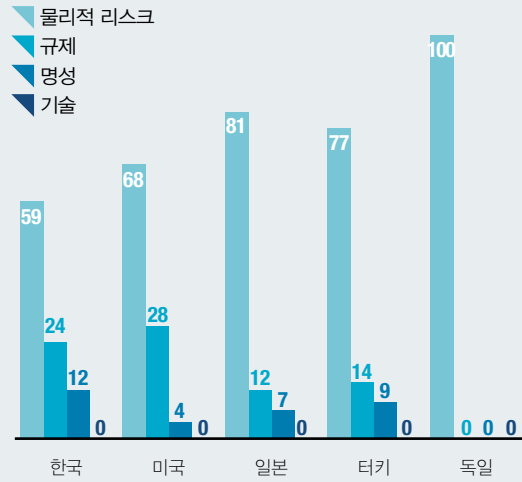


KSW 7 물 관련 기회를 파악한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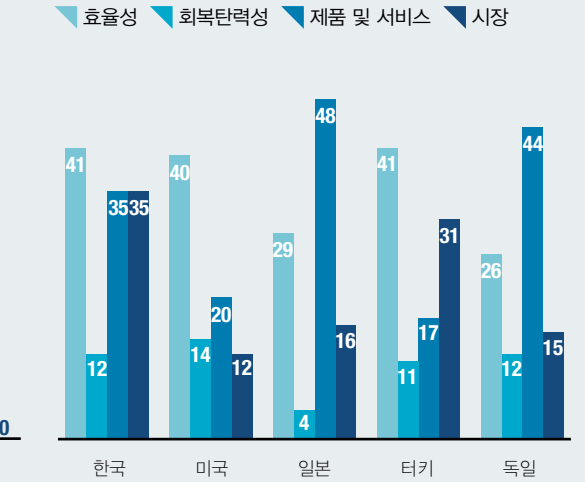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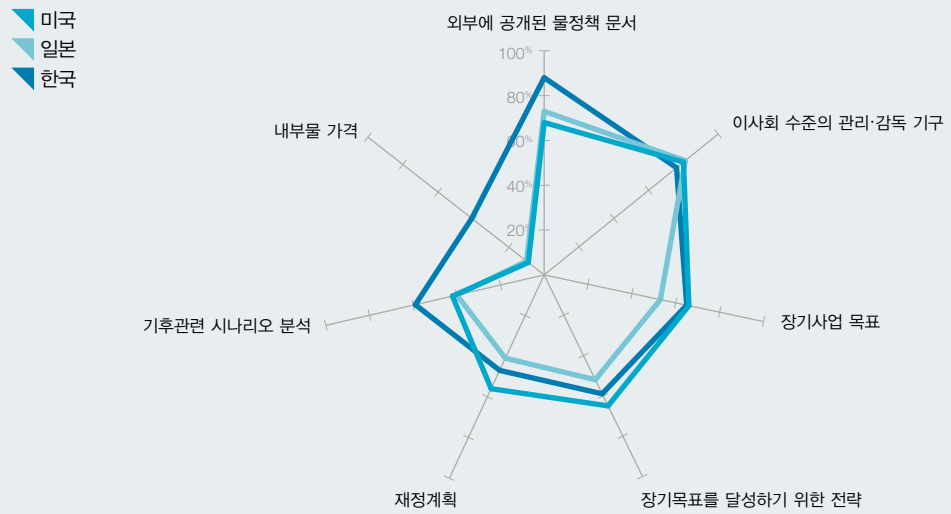
KSW 8 주요 물리스크별 보고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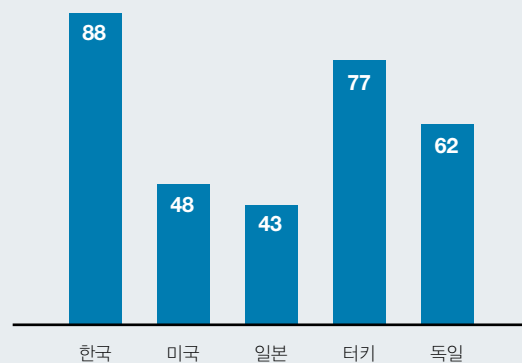
KSW 9 주요 물기회별 보고 기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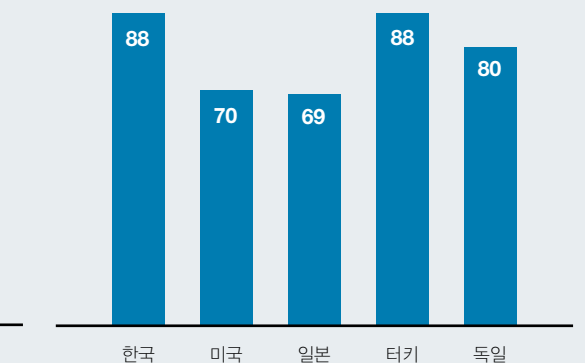
KSW 10 물 정책에 반영된 요소별 비율



KSW 11 전사적 수준의 목표 수립 기업 비율



KSW 12 물과 다른 환경관련 이슈의 상관관계 파악 기업 비율



부록 I

CDP 2018 Climate Change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ETS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3년 연속 미응답 기업
응답(L) :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 F :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그룹명	CDP 밴드	기업명
삼성	Leadership A-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삼성전자
	Management B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SDI
	Awareness C	삼성화재
	Disclosure D	삼성중공업
	F(무응답)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에스원*
		제일기획
		호텔신라
현대자동차	Leadership A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A-	현대글로벌비스
	Management B	기아자동차
		B- 현대모비스
		B- 현대제철
	F(무응답)	현대위아*
		현대로템
		이노션*
LG	Leadership A	LG디스플레이
		A- (주)LG
		LG유플러스
		LG화학
	Management B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전자
		LG하우시스
	Disclosure D	LG상사
SK	Leadership A-	SK 하이닉스
	Awareness C	SK텔레콤
	Disclosure D	SK(주)
	F(무응답)	SK네트웍스*
		SK머티리얼즈*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C*

그룹명	CDP 밴드	기업명
롯데	Awareness C	롯데케미칼
		F(무응답) 롯데쇼핑*
		롯데정밀화학
		롯데제과
		롯데지주*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CJ	Awareness C	CJ제일제당
		F(무응답) CJ대한통운*
		CJ(주)*
		CJ CGV*
		CJ E&M*
현대중공업	F(무응답)	현대건설기계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한화	F(무응답)	(주)한화
		한화생명*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윈
GS	Disclosure D	GS건설
		F(무응답) (주)GS*
		GS리테일*
		GS홈쇼핑
두산	Disclosure D	두산중공업
		F(무응답) (주)두산
		두산밥캣
		두산인프라코어*
포스코	Management B	포스코
		F(무응답)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켄텍*
영풍	F(무응답)	고려야연*
		영풍*
		인터플렉스
메리츠금융	F(무응답)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금융지주*
금호아시아나	Disclosure D	금호석유화학
		F(무응답)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그룹명	CDP 밴드	기업명
현대백화점	F(무응답)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셀트리온	F(무응답)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한국전력	Leadership A-	한국전력공사
		F(무응답) 한전KPS*
아모레퍼시픽	Awareness C	아모레퍼시픽
		F(무응답) 아모레퍼시픽그룹
카카오	F(무응답)	로엔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산업은행	Management B	대우건설
		미래에셋대우
신세계	F(무응답)	신세계*
		이마트*
한국타이어	Leadership A-	한국타이어
		F(무응답)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동부	F(무응답)	동부하이텍*
		동부화재
오리온	F(무응답)	오리온
		오리온 홀딩스
녹십자	F(무응답)	녹십자*
		녹십자홀딩스*
LS	Disclosure D	LS산전
		F(무응답) (주)LS*
한솔	Awareness C	한솔케미칼*
		F(무응답) 한솔제지
한국전력공사	Management B	한국동서발전
		Awareness C 한국남동발전

부록 II

CDP 2018 Water Korea 그룹별 참여현황

그룹별 응답률

LG

100% (5/5)

포스코

50% (1/2)

현대자동차

33% (1/3)

한국전력

0% (0/7)

삼성

60% (3/5)

CJ

50% (1/2)

SK

25% (1/4)

롯데

0% (0/2)

그룹명	CDP 밴드	기업명
한국전력	F (미응답)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삼성	Leadership	A- 삼성전자
	Awareness	C 삼성전기
	응답(L)	삼성SDI
	F (미응답)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LG	Leadership	A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Management	B LG화학
	Management	B- LG생활건강
		LG전자

그룹명	CDP 밴드	기업명
SK	Management B F (미응답)	SK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SK E&S
현대자동차	Awareness C F (미응답)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포스코	Leadership A- F (미응답)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CJ	Management B- F (미응답)	CJ제일제당
		CJ(주)
롯데	F (미응답)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Note

응답(L): CDP 공식 응답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기업, 평가에 미반영

부록 III

CDP 2018 Climate Change Korea 기업별 현황

ETS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

(-): 해당연도 CDP Korea 200, 250 제외 기업

응답(L):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 F: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기업명	수정	영남권 기업 지배적 지배권 지배권	2018 CDP 배드	2017	2016	2015	2014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보고 수	기타 배출량
금융섹터											
신한금융지주	명예의전당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16,733	80,897	10	절대량
기업은행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11,443	48,497	9	절대량
KB금융지주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19,179	112,322	7	절대량
DGB금융지주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2,674	15,369	10	절대량&원단위
동부화재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동양생명*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맥쿼리인프라*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메리츠금융지주*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메리츠증권*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메리츠화재*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미래에셋대우			Management B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1,075	16,640	3	절대량
삼성생명*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삼성증권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삼성카드*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삼성화재			Awareness C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4,903	16,221	4	절대량&원단위
오렌지라이프			F(무응답)	-	-	-	-				
우리은행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				
키움증권*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하나금융지주		검증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응답(L)	무응답				
한국금융지주*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한화생명*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해상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BNK금융지주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L)	응답				
NH투자증권			Disclosure D	Disclosure D	응답	무응답	무응답	89	3,046		절대량
산업재섹터											
삼성물산	명예의전당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	응답	121,711	112,514	7	절대량&원단위
현대건설	명예의전당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430,440	200,700	8	절대량
삼성엔지니어링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66,877	16,018	10	절대량&원단위
현대글로벌비스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무응답	무응답	3,481,452	7,142	4	절대량
SK건설	특별상(비상장)	자발적참여	Leadership A-	-	-	-	-	20,643	32,460	8	절대량
대림산업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대우건설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9,147	61,358	5	절대량
대우인터내셔널*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대우조선해양			F(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대한전선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	-				
대한항공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두산인프라코어*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두산중공업			Disclosure D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116,891	139,411	6	절대량
롯데제과			F(무응답)	-	-	-	-				
삼성중공업			Disclosure D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250,236	232,110	5	절대량
아시아나항공*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아이에스동서*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에스원*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부록 III

CDP 2018 Climate Change Korea 기업별 현황

ETS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

(-): 해당연도 CDP Korea 200, 250 제외 기업

응답(L):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 F: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기업명	수정	영남지역 기업별 참여 지표	2018 CDP 배드	2017	2016	2015	2014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보고 수	기타 배출량
제주항공*			F(무응답)	F(무응답)	-	-	-				
팬오션*			F(무응답)	F(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한국철도공사		자발적참여	Disclosure D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348,297	1,258,883		절대량
한국항공우주*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전KPS*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화테크윈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현대건설기계			F(무응답)	-	-	-	-				
현대로템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미포조선*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산업개발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엘리베이터			F(무응답)		-	-	-				
현대중공업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주)LG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2,246,866	2,315,445	3	절대량
(주)LS*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주)두산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CJ대한통운*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CJ*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GS건설			Disclosure D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63,958	79,473	1	절대량&원단위
KCC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LG상사		자발적참여	Disclosure D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LG하우시스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65,480	150,860	7	절대량
LS산전			Disclosure D	Awareness C	응답	응답	응답	255,140	28,540	1	절대량
SK네트웍스*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SK*			Disclosure D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518	56,834	6	절대량&원단위
선택소비재섹터											
현대자동차	아너스클럽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805,105	1,797,736	12	절대량
웅진코웨이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380	5,012	11	절대량&원단위
한국타이어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267,940	1,050,414	9	원단위
기아자동차	특별상(신규참여)		Management B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388,749	811,553	11	절대량
강원랜드*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금호타이어*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넥센타이어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대림텍스		자발적참여	Disclosure D	Disclosure D	-	-	-				
덕산		자발적참여	Disclosure D	Disclosure D-	-	-	-	16,504			
도레이케미칼*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로엔엔터테인먼트*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롯데쇼핑*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응답				
롯데하이마트*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만도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무응답	무응답				
신세계*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쌍용자동차*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에이치엘비			F(무응답)	-	-	-	-				
영원무역*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이노션*			F(무응답)	F(무응답)	-	-	-				
정산인터내셔널		자발적참여	Disclosure D	Disclosure D	응답	-	-				

부록 III

CDP 2018 Climate Change Korea 기업별 현황

ETS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

(-): 해당연도 CDP Korea 200, 250 제외 기업

응답(L):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 F: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기업명	수정	에너지 환경 정보 공개 지침 적용	2018 CDP 배드	2017	2016	2015	2014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보고 수	전 국 단 위
제일기획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쿠쿠전자*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파라다이스 *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하만인터내셔널인더스트리		자발적참여	응답(L)	-	-	-	-				
한라비스테온공조			Disclosure D	Disclosure D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샘*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세산업		자발적참여	응답(L)	응답(L)	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모비스			Management B-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41,501	310,349		절대량
현대백화점*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위아*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홈쇼핑*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호텔신라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CJCGV*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CJE&M*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GKL *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GS홈쇼핑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LG전자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1,096,960	817,602	13	절대량
S&T모티브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L)	-				
에너지섹터											
(주)GS*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SK이노베이션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S-Oil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원자재섹터											
LG화학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5,244,544	4,059,603	9	절대량&원단위
고려아연*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고려제강			F(무응답)		응답	무응답	무응답				
금호석유화학			Disclosure D	F(무응답)	응답	무응답	응답				
대한유화*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동국제강			F(무응답)	F(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동부하이텍*			F(무응답)	F(무응답)	-	-	-				
동진썬미켈			F(무응답)	-	-	-	-				
두산밥캣			F(무응답)	F(무응답)	-	-	-				
락앤락			F(무응답)	-	-	무응답	무응답				
롯데정밀화학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롯데케미칼			Awareness C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4,394,047	1,550,852	3	절대량&원단위
세아베스틸*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쌍용양회*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영풍*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코오롱인더스트리			Awareness C	Awareness C-	응답	무응답	무응답				
태광산업*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포스코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67,743,000	2,956,000	6	원단위
포스코케미*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풍산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한솔제지		자발적참여	Awareness C	Awareness C	응답	응답	무응답				
한솔케미칼*			F(무응답)	F(무응답)	-	-	-				

부록 III

CDP 2018 Climate Change Korea 기업별 현황

ETS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

(-): 해당연도 CDP Korea 200, 250 제외 기업

응답(L):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 F: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기업명	수정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배적 참여	2018 CDP 배드	2017	2016	2015	2014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보고 수	기타 정보
한일시멘트*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한화케미칼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현대제철			Management B-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13,586,202	5,766,854	4	절대량
화승인더스트리			F(무응답)	F(무응답)	-	-	-				
효성			Disclosure D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후성			F(무응답)	F(무응답)	-	-	무응답				
휴켄스*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주)한화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OCI㈜*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SKC*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SK코오롱PI			F(무응답)	-	-	-	-				
SK머티리얼즈*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SK케미칼*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유틸리티섹터											
한국전력공사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1,290,443	184,589	8	절대량&원단위
한국지역난방공사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한국남동발전	특별상(비상징)	자발적참여	Management B	Management B	-	-	-	58,069,879	70,786	8	절대량
한국가스공사			Management B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551,549	360,572	7	절대량
한국동서발전		자발적참여	Awareness C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38,498,711	79,329	10	절대량&원단위
제약건강섹터											
녹십자*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응답	응답				
녹십자홀딩스*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대웅제약			F(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메디톡스*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바이로메드*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삼성바이오로직스			F(무응답)	F(무응답)	-	-	-				
셀트리온*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셀트리온제약			F(무응답)	F(무응답)	-	-	-				
셀트리온헬스케어			F(무응답)	-	-	-	-				
신라젠			F(무응답)	-	-	-	-				
영진약품			F(무응답)	F(무응답)	-	-	-				
유한양행*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코미팜*			F(무응답)	F(무응답)	-	-	-				
한미사이언스*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한미약품*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휴젤			F(무응답)	-	-	-	-				
통신섹터											
KT	명예의 전당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41,373	1,069,714	12	절대량
LG유플러스	섹터아너스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4,078	1,011,271	6	절대량
SK텔레콤			Awareness C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6,835	868,566	3	절대량
필수소비재섹터											
농심*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대상*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서*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동원F&B*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부록 III

CDP 2018 Climate Change Korea 기업별 현황

ETS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 3년 이상 연속 미응답 기업

(-): 해당연도 CDP Korea 200, 250 제외 기업

응답(L): 응답지연, 평가 및 분석에 미반영 / F: 무응답 또는 응답거부 기업

기업명	수정	영남지역 기업별 참여 지표적 참여	2018 CDP 배드	2017	2016	2015	2014	Scope 1 배출량	Scope 2 배출량	Scope 3 배출량 보고 수	지속가능성 지표
롯데지주*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롯데칠성*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빙그레*			F(무응답)	F(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삼립식품*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삼양사*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아모레퍼시픽			Awareness C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8,092	33,810	4	원단위
아모레퍼시픽그룹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오뚜기*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오리온			F(무응답)	-	-	-	-				
오리온홀딩스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응답	응답				
이마트*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코스맥스		자발적참여	응답(L)	응답(L)	응답	응답	응답				
풀무원		자발적참여	Awareness C	Leadership A-	-	-	-	12,001	39,926	8	원단위
하이트진로*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한국콜마*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현대그린푸드*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BGF리테일*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CJ제일제당			Awareness C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175,981	195,853	3	원단위
GS리테일*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KT&G			F(무응답)	F(무응답)	응답	무응답	응답				
LG생활건강			Management B	Management B	응답	응답	응답	8,221	38,144	4	원단위
IT섹터											
삼성전기	명예의전당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59,513	1,076,208	12	절대량&원단위
SK하이닉스	명예의전당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943,830	3,333,865	13	절대량&원단위
LG디스플레이	아너스클럽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3,341,402	4,088,286	5	절대량
삼성전자	섹터아너스	검증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3,668,000	9,917,000	14	원단위
나노스			F(무응답)	-	-	-	-				
넷마블			F(무응답)	-	-	-	-				
삼성SDI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143,581	775,746	7	절대량&원단위
삼성SDS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무응답	-	4,545	92,146	4	절대량&원단위
서울반도체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에스에프에이			F(무응답)	F(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원익아이피에스			F(무응답)	-	-	-	-				
인터플렉스			F(무응답)	-	-	-	무응답				
일진머티리얼즈			F(무응답)	F(무응답)	-	-	-				
카카오*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컴투스*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펠어비스			F(무응답)	-	-	-	-				
현대중공업지주			F(무응답)	-	-	-	-				
LG이노텍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응답	응답	29,422	398,093	10	절대량&원단위
Naver*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				
NC소프트*			F(무응답)	F(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NHN엔터테인먼트			F(무응답)	-	무응답	무응답	무응답				

부록 IV

CDP 2018 Water Korea 기업별 현황

기업명	2018 CDP 밴드	2017 밴드	2016 응답여부
산업재			
현대건설	Awareness C	Management B-	응답
한국철도공사	Disclosure D	Disclosure D	미대상
대우건설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두산중공업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삼성물산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삼성엔지니어링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삼성중공업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CJ(주)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GS건설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KCC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선택소비재			
웅진코웨이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LG전자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하만인터내셔널인더스트리	Awareness C	미대상	미대상
한국타이어	Awareness C	F (미응답)	응답
한온시스템	Awareness C-	미대상	미대상
현대자동차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에너지			
S-Oil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SK이노베이션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원자재			
포스코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LG화학	Management B	Leadership A-	응답
고려아연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롯데케미칼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한화케미칼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현대제철	F (미응답)	F (미응답)	응답
효성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SK케미칼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기업명	2018 CDP 밴드	2017 밴드	2016 응답여부
유틸리티			
포스코에너지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한국남동발전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한국남북발전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한국동서발전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한국서부발전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한국수력원자력공사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한국전력공사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한국중부발전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한국지역난방공사	F (미응답)	F (미응답)	응답
GS EPS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SK E&S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필수소비재			
풀무원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CJ제일제당	Management B-	Management B	응답
LG생활건강	Management B-	Management B	응답
대상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롯데칠성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아모레퍼시픽	F (미응답)	Management B	응답
오리온	F (미응답)	F (미응답)	응답(L)
오비맥주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하이트진로	F (미응답)	F (미응답)	미응답
IT			
LG디스플레이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LG이노텍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삼성전자	Leadership A-	Leadership A	응답
SK하이닉스	Management B	Management B	응답(L)
삼성전기	Awareness C	Management B	응답
삼성SDI	응답(L)	F (미응답)	응답(L)

Note

응답(L): CDP 공식 응답마감일 이후에 제출한 기업, 평가에 미반영

CDP Contacts

Sue Howells

Co-Chief Operating Officer

Rick Stathers

Head of Investor Initiatives

Antigone Theodorou

Director, Global operations

CDP

Level 3
4th Floor Plantation Place South
60 Great Tower Street
London EC3R 5AD
Tel: +44 (0) 20 3818 3900
www.cdp.net
info@cdp.net

CDP 한국위원회 Contacts (사무국: kosif)

장지인

위원장

양춘승

상임부위원장

송호상

부위원장

이종오

사무국장

김태한

책임연구원

엄혜영

연구원

이성은

연구원

kosif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2 738 1142
www.kosif.org
korea@cdp.net

EY한영 Contacts (한국 평가파트너)

정영일

파트너

유준혁

이사

안민우

매니저

김지선

시니어 컨설턴트

EY한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4-8F
Tel: +82 (0)2 3787 6600
www.ey.com
jun-hyuk.yoo@kr.ey.com

CDP 한국위원회

장지인

위원장
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CDP Climate Change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이병욱

세종대학교 교수
전 환경부 차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허택

건국대학교 교수

CDP Water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이길재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

정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고익환

(주)유신 부사장

CDP 실무위원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정영일

EY한영 파트너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대표